

서울의 NO.1 문화 공간 남대문시장

전문성 돋보이는 특화골목 눈길

서울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남대문시장. 600년 이란 오랜 역사만큼 이곳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1만 172곳의 점포, 1700여 종의 상품, 5만여 명의 상인, 하루 40만 명의 방문객... 시장을 이루는 요소들은 우리 삶의 단면처럼 다양하고 풍부하다.

괜히 우리나라 최대 규모 시장이 아니다. 남대문시장 곳곳을 다녀보면 의류, 액세서리, 농수산물, 주방용품, 공예품, 수입용, 꽃, 귀금속 등 '없는 게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특히 한 종류의 상품을 다루는 전문상인들이 눈에 띈다. 시계상점들로 이뤄진 시계골목, 문구점으로 채워진 문구골목을 비롯해 안경 및 카메라골목, 그릇 및 수입품상가골목 등 많은 특화골목이 조성돼 있다. 편안한 동선을 따라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으며, 물건을 비교·분석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시작된 갈치음식점들이 인기를 끌며 지금의 특화골목이 된 갈치조림골목은 이곳의 핫스팟. 남창동 본동상가 주변에 몰려 있는 이 골목은 입구 언저리부터 스멜스멜 피어오르는 냄새의 유혹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힘들다.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쌓인 갈치조림 냄비와, 빨간 불 위에서 먹음직스럽게 끓고 있는 수십 개의 갈치조림은 그야말로 진풍경. 이 맛을 본 외국인들에게는 또 다시 한국을 찾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40여 년 전통의 칼국수골목에도 늘 많은 사람들이 북적인다. 이 골목은 보리밥과 칼국수, 냉면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은 마치 자식을 배부르게 먹여 보내고픈 부모의 심정과 닮아 마음을 따뜻하게 데운다. 칼국수골목은 남대문시장 2번 출구 맞은편에 자리해 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시장

남대문시장 인근에는 더불어 즐기 좋은 장소가 많아 하루를 온통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 '덕수궁-청계천-창덕궁-남대문-인사동'을 코스로 고궁 투어를 하며 우리나

라 역사와 고유의 전통문화에 흠뻑 빠져볼 수 있고, '광화문-덕수궁-남산타워-청계천-남대문'을 코스로 야간 투어를 즐기며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이곳은 곧 한류 먹거리 특화거리(K-Food Street)로 조성된다. 외국인 입맛에 맞는 한류 음식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대표 먹거리들을 한곳에 모아 특색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남대문시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통시장인 스페인의 '산타카테리나'나 터키의 '그랜드바자르'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시장으로 도약할 날이 머지 않았다.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교통 역시 편리한 남대문시장은 지하철 4호선 회현(남대문시장)역 5·6·7번 출구로 나가면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시장 내 외국인 전용센터인 '글로벌 커뮤니티 라운지'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관광객의 편리한 쇼핑을 돕는다. 또 TAX-REFUND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어 이곳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은 세금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갈치조림, 칼국수, 꼬리곰탕 | 액세서리, 아동복, 인테리어 소품
즐길거리 시계골목, 카메라골목, 문구골목, 그릇 및 수입품 상가골목
주변 관광지 덕수궁, 남산타워, 청계천, 남대문, 인사동
찾아가는 길 서울지하철 4호선 회현역 5·6·7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쇼핑의 메카, 패션의 성지 동대문시장

잠들지 않는 패션문화의 핵

서울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곳을 묻는다면 단연 이곳을 꼽겠다. 24시간 쇼핑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인 동대문시장 말이다. 100년 전통을 가진 패션 도매시장인 이곳은 최신 의류와 패션잡화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기획·생산·판매하며, 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밤늦은 시간에도 번쩍번쩍 불을 밝히는 동대문시장은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창신동 문구거리까지 약 1.3km에 걸쳐 청계천로 좌우로 형성된 시장 전체를 일컫는다. 건물 약 30여동에 3만여 개의 점포가 있으며, 전통적인 도매상권(평화시장·동대문종합시장·신평화시장 등)과 현대적인 상권(동대문디자인플라자·디자이너클럽·우노코레 등)이 어우러져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 관련 산업집적지인 이곳 일대를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로 부른다.

동대문시장은 전국 각지의 도·소매 의류 상인들로 늘 활야성을 이룬다. 특히 대형 쇼펍타운들은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인산인해다. 상가들 모두 유사해 보이지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영업시간 역시 차이가 있다.

동대문종합시장은 오전 8시 30분~오후 7시(토요일은 5시) 영업·매주 일요일 휴무, 밀리오레는 오전 10시 30분~익일 오전 4시 30분 영업·매주 월요일 휴무, 두산타워는 오전 10시 30분~익일 오전 5시(일요일은 12시) 영업·휴무일은 없다. 이곳 쇼펍타운마다 마련된 옥외공연장에서는 가수 초청 공연과 비보이쇼, 댄스경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외국인들의 야간 투어 코스로도 유명하다.

곳곳에 숨은 맛집 찾기

동대문시장은 보물 제1호인 홍인지문, 차로 10여 분이면 도착하는 남산타워, 시장을 둘러싼 청계천 등 의미 있는 명소와 가까운 만큼 이들을 연계해 즐기는 관광객들이 많다.

또한 동대문패션위크, 서울패션위크, 청계수상패션쇼 등 패션 관련 다양한 행사와 동대문관광특구축제가 매년 개최

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패션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기를 맞춰 쇼핑을 즐기러 온다면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동대문시장의 매력이 패션뿐일까? 숨어 있는 맛집들은 이곳 전통만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입소문 자자한 또 다른 명소다. 평화시장 옆에 위치한 생선구이골목은 자옥한 연기와 고소한 냄새가 안 그래도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다. 고등어, 삼치, 조기, 꽂치, 갈치 등을 연탄불에 구워내 감칠맛이 일품인 생선구이는 동대문역 9번 출구에서 도보로 8분이면 맛볼 수 있다. 매콤한 비빔국수는 3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으로 마음마저 배부르게 하고, 마치 월남쌈 같은 형상의 LA김밥은 입맛대로 골라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맛과 재미를 모두 느끼게 한다. 김치 좀 먹어본 외국인이라도 정신 아득하게 하는 매운맛의 떡볶이와 불닭도 동대문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다.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8번 출구,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4번 출구로 나오면 펼쳐진다.

tip



먹거리·특산물 생선구이, LA김밥, 떡볶이, 불닭 | 의류, 가족, 액세서리
즐길거리 동대문패션위크, 서울패션위크, 청계수상패션쇼
주변 관광지 남산타워, 청계천, 덕수궁, 창경궁, 종묘
찾아가는 길 서울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8번 출구~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4번 출구

런웨이 무대 펼쳐지는 전통시장

광장시장

외국인도 모두 반한 먹거리 천국

100년의 전통을 뿌리로 둔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서울 10대 한류 명소로 선정됐다. 그 비결은 바로 이곳의 자랑인 먹거리 덕분. 먹거리장터라 불리는 시장 골목에는 90여 개의 식당이 있고, 이곳에서 파는 음식도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폭염이 찾아오든 강추위가 불어 닥치는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다. 지글지글 빈대떡 지지는 기름 소리, 성인 팔뚝만 한 순대 송덩송덩 썰어내는 상인 할머니의 칼질,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매운 떡볶이 한입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청년의 표정, 작은 언덕을 만든 만두더미와 개 한 통을 죄다 쏟아부은 듯한 마약김밥, 대형마트에선 결코 구경할 수 없는 큼직한 시식 음식... 사방을 둘러싼 이곳만의 풍경과 정서는 눈과 귀는 물론 오감을 모두 채운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외국인들도 엄지를 치켜세우며 어설픈 한국말로 찬사를 내뱉곤 한다.

언론에서도 광장시장의 먹거리장터는 종종 소개되곤 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과 '런닝맨', '1박 2일'을 통해 이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정겨운 분위기는 전파를 타고 외국에까지 흘러가 시장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품질 좋은 원단, 우수한 디자인

먹거리로 유명세를 탄 광장시장. 하지만 이곳의 특산품은 한복 원단과 커튼, 침구류다. 전통 있는 원단 시장의 내공은 사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먹거리장터에서 종로 4가 방면으로 걸음을 옮기면 각종 원단과 부자재로 즐비한 상가들이 등장한다. 광목과 삼베 등을 파는 매장부터 시작해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예점들도 빼곡하다. 직물부 상가 계단을 오르면 색깔이 아름다운 한복 원단, 단아함과 화려함을 넘나드는 웨딩드레스 원단,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의 침구 및 커튼 원단이 펼쳐져 있다. 원단을 구매하러 온 방문객에게 쓰임새와 가격에 따라 노련하

게 상품을 소개하는 상인의 말솜씨를 듣고 있자니 없던 구미욕도 생기는 듯하다.

광장직물부 건물 2, 3층에 자리한 구제품 상가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구제상품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에겐 천국 같은 곳. 이곳에서 판매하는 90%는 헌옷이지만 세월의 더께가 얹은 멋스러운 상품들은 새 옷의 가치를 초월한다.

광장시장에서는 이곳 특산품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시장 서문에서 열리는 패션쇼는 이곳 상인들이 직접 제작한 한복과 양장을 선보이는 런웨이 무대와 공연으로 꾸며진다. 이 이벤트는 좋은 품질의 원단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알려 시장의 품격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광장시장은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9분이면 도착한다. 시장 내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서는 초행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니 참고하면 좋다.

tip



먹거리·특산품 빈대떡, 마약김밥, 곱창, 수수부꾸미 | 한복 원단, 커튼, 침구류
즐길거리 먹거리 장터, 구제품 상가, 시장 패션쇼
주변 관광지 인사동, 창덕궁, 창경궁, 창계천
찾아가는 길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 문화시장

통인시장

통인시장의 신의 한 수 도시락카페

경복궁 서쪽 마을인 서촌. 한국적이면서도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이곳에 통인시장이 있다. 하나의 골목이 직선으로 길게 이어진 형태를 한 이곳엔 음식점이 어찌나 많은지 몇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입맛을 다시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앞서 소개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광장시장이 관광명소형 시장이라면 통인시장은 생활밀착형 시장이다. 70~80개 남짓한 점포로 구성된 자그마한 규모로, 서촌 주민들이 제집처럼 드나드는 친근한 장소다. 과일·채소·생선·정육·의류가게, 목공방, 수선점 등 여러 점포들이 있지만, 이곳의 특징은 식당과 반찬가게 등 요식 관련 점포가 많다는 것.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시장은 2012년부터 도시락카페를 열었고, 이는 시쳇말로 대박을 쳤다.

시장 내 고객지원센터에서 엽전(한 냥당 500원)을 구입한 후 가맹점에 지불하면 시장 내 음식을 뷔페 이용하듯 자유롭게 도시락에 담아 먹을 수 있는 방식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한 시장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데다 이곳만의 화폐로 마치 과거여행을 하는 듯해 특별한 추억도 만들 수 있다.

통인시장의 명물로 꼽히는 기름떡볶이는 단연 도시락 이용객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음식.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60년 전통의 조리법은 떡이 생소한 외국인들의 입맛마저 사로잡았다. 꼬마김밥과 떡꼬치, 감자만두 등 다양한 분식과 떡갈비는 이곳의 스테디셀러. 그리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문어꼬치와 커피처럼 일회용컵에 담아 파는 길거리 맥주는 이곳의 신홍강자다. 특히 길거리 맥주, 일명 길맥은 자몽·망고, 딸기 등 과일맛도 첨가해 여성 방문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가장 한국적인 시장, 그와 어울리는 즐길거리

외국어로 쓰인 간판을 찾아볼 수 없는 서촌은 어찌하면 외국인들에겐 그리 편하지 않은 곳일지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서울 하늘 아래 가장 한국적인 공간이란 이유로 사랑받고 있어 통인시장도 덩달아 외국인 방문객들로 북적인다.

시장 가까이에 위치한 덕수궁, 창덕궁, 명동, 남대문, 창계천은 통인시장과 함께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명소. 특히 창덕궁은 다른 고궁들과 달리 한국식 조형미가 돋보이는 고궁이기에 통인시장의 매력과 일치한다.

통인시장이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때문이다. 규모에 비해 많은 행사를 여는 이곳은 방문객을 위한 알찬 시장으로 통한다. 김치 만들기, 매실원액 담그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공방 DIY 체험 등으로 시장이 그저 쇼핑이나 식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다채롭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명소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 어릴 적 즐겨 먹던 불량식품과 어른이 된 후 잊고 지내던 추억의 만화 캐릭터 인형들은 어른은 물론 호기심 많은 아이의 취향까지 저격한다.

볼거리 많은 통인시장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서촌의 분위기에 빠져 걷다 보면 그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것이 분명하다.

tip



먹거리·특산품 기름떡볶이, 꼬마김밥, 감자만두, 문어꼬치 | 통인시장 엽전, 김
즐길거리 도시락 카페 통(通), 천연 화장품 만들기, 공방 DIY 체험
주변 관광지 덕수궁, 창계천, 창덕궁, 남대문, 인사동, 남산타워
찾아가는 길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도보 7분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쇼핑 공간

망원시장

흔뻑쪽에겐 천국 같은 곳

최근 새로운 젊음의 거리가 생겨났다. 일명 '망리단길'로 불리는 망원동 일대. 이곳의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은 망원동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공간의 한 축으로 통하고 있다.

40년 전 골목 좌판에서 시작된 망원시장은 망원역에서 가까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진초록 처마가 손짓하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장바구니 든 주민들로 북적이는 전형적인 시장 풍경을 목격할 수 있다.

바구니 넘치게 담긴 과일, 방금 캐낸 듯 흙까지 잔뜩 묻은 채소, 한 끼 분량으로 포장된 1인 가구를 위한 반찬들을 지나면 보이는 이곳의 터줏대감 칼국수집. 라이벌 구도로 양쪽에 자리한 두 곳의 가게는 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 친절환 서비스로 모두 문전성시를 이룬다. 3900원짜리 닭곰탕과 500원부터 1000원대인 수제 크로켓도 이곳의 인기 메뉴.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육중완을 통해 유명해진 닭강정과 '맛있는 TV'에서 장수원이 맛있게 먹어 눈길을 끈 오징어튀김김밥은 많은 방문객들이 망원시장을 찾는 이유가 됐다.

망원동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이곳 망원시장은 젊은 이들의 데이트 코스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됐다. 적은 금액으로 실컷 먹고 즐길 수 있는 이곳 시장과 더불어 골목 안 숨은 명소를 찾는 재미가 있는 망리단길 커피거리, 옥상 야경이 끝내주는 카페 '817워크샵', 거리 미술관으로 통하는 하늘공원은 서로 연결해 함께 즐기면 좋은 관광 코스다.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특별한 공간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위기를 겪는 것과 달리, 망원시장은 오히려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됐다. 망원동 일대의 1~2인 가구와 젊은 층을 겨냥한 서비스를 고집하던 시장 상인들은 장보기 도우미와 배달 서비스 등을 고안해냈다. 특히 장보기 서비스는 교통카드로 결제는

물론 환승 할인까지 가능해 방문객들의 만족은 더욱 높다.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이뿐이 아니다. 1인분 식재료를 담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꾸러미 상품을 개발하고, 1~2인 가구가 다양한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 과일을 물물교환하는 공간인 '망과휴'를 조성했다. 또 '우야식당'이라는 집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망원혼밥'이라는 도시락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고, 1인 가구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조리법을 모은 책자 '망원시장 오늘의 레시피북'을 제작해 무료 배포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장 내 'SPACE 2012'라는 문화복합공간도 만들어 사진 전시나 요리 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망원동에 거주하는 뮤지션의 음악을 들려주는 문화예술 행사도 열며 시장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즐길거리 넘치고 배려가 느껴지며 예술의 향기까지 솔솔 나는 이곳 망원시장을 그냥 지나치긴 어렵지 않을까?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이면 망원시장이 보인다. 시장 곳곳의 샛길은 망리단길과 이어지는 통로이니 마음껏 넘나들며 시간을 보내길 추천하는 바다.

tip



먹거리·특산품 칼국수, 닭곰탕, 오징어튀김김밥, 족발, 크로켓 | 닭강정
즐길거리 꾸러미 상품, 망과휴, 복합문화공간 SPACE2012
주변 관광지 망리단길 커피거리, 817워크샵, 하늘공원
찾아가는 길 서울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세 개의 시장, 세 배의 매력

수유마을시장

외국인 관광객 위한 사려 깊은 서비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수유마을시장은 350여 개의 상가로 이뤄진 중대형 규모의 시장이다. 이곳의 특이점은 세 개의 각기 다른 시장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했다는 점. 의류나 잡화 등의 공산품을 판매하는 건물형 상가 수유시장과 과일·채소·건어물 등 1차 식품을 판매하는 골목형 시장 수유전통시장, 수유재래시장이라 부르는 수유전통시장이 이곳을 이루고 있다.

수유마을시장에 들어서면 절로 마음이 경건해진다. 까닭은 인근 아케이드를 따라 줄지어 걸려 있는 태극기 배너 때문이다. 방문객들이 쉽게 상점의 정보를 알 수 있게 지역과 상품 종류만을 간소히 내건 간판들은 태극기와 나란히 내걸려 시장을 밝히고 있다.

시장 내에는 상점 정보와 시장 지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무인정보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데, 무려 4개 국어로 확인이 가능하다. 외국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관광 명소로서의 책임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시장 내에 자리한 문화공간 역시 이곳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라는 틀을 벗어났음을 알려준다. 수유시장에 마련된 '생생클럽'은 방문객들의 컴퓨터와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저학년)를 대상으로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수유마을 작은 도서관'은 상인과 지역 주민 누구나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이자, 최근 영어 멘토링 캠프와 교양 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스포츠, 목공예, 사물놀이 등의 취미활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 공간 '다락방'도 있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러한 공간들로 인해 시장은 지역의 메카가 되고 있다.

시장 안팎으로 힐링 요소가 가득

수유마을시장 인근에는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명소가 많다. 명소와 연계해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전국 둘레길 중 으뜸으로 평가받는 북한산둘레길 3구간에서 도보로 23분, 간선버스 151번을 타면 10여 분 만에 수유마을시장으로 갈 수 있다. 강북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구름전망대에서 경치를 마음껏 즐긴 이들은 여지 없이 수유시장으로 향해 허기를 채운다.

템플스테이를 위해 화계사를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시장은 빼놓을 수 없는 여행 코스 중 한 곳. 전통시장 고유의 따뜻한 분위기는 힐링 체험의 연장선이 아닐까.

많은 방문객이 이곳 시장으로 모여드는 데에는 먹거리의 유혹이 가장 크다. 청년 장사꾼이 만드는 타코야키와 시장 특유의 정이 느껴지는 족발도 유명하지만, 뭉니 뭉니 해도 수유마을시장의 명물은 파배기와 찹쌀도넛. 쫄깃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하던 한 빵집은 최근 '백종원의 3대천왕'에서 맛집으로 소개돼 그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수유마을시장은 지하철 4호선 미아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8분이다. 세 개의 시장이 이어진 이곳의 정보는 시장 내 벽에 부착된 쇼핑가이드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tip



먹거리·특산품 파배기와 찹쌀도넛, 타코야키, 족발 | 죽석구이 김, 1차 식품군
즐길거리 한복·혼수용품, 수유마을 작은 도서관, 생생클럽
주변 관광지 북한산 둘레길, 성북예술창작센터, 화계사 템플스테이
찾아가는 길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8번 출구에서 도보 8분

맛있는 문화가 멋과 함께 넘쳐흐르는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다채로운 술과 안주의 유혹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멋들어지게 차린 한정식보다 막걸리 한 사발에 김이 폴폴 나는 전 한 장의 소박한 행복을 원한다면 여기로 향해야겠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서민음식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세종음식문화거리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경복궁역에서 몇 걸음이면 된다. 골목 입구부터 환히 빛나고 있다. 뒤로 보이는 간판명만 봐도 끝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음식집이 뻗뻗하다. 일명 먹자골목이다.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는 상점가의 80% 이상이 음식점과 주점으로 구성돼 있고,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전과 막걸리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어 이름나기 시작했다. 제부동 잔치집, 아우네 빈대떡, 전대감떡... 상호만 봐도 정겨운 향이 풍기고 팬스레 친근함이 느껴진다.

이곳 거리엔 1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킨 터줏대감 상점과 재기발랄하고 패기 넘치는 새로운 상점이 어우러져 있다.

심마니가 운영하는 산약초 막걸리 전문점, 무려 50가지 안주가 준비된 막걸리 전문점, 청년 장사꾼들이 감자튀김 하나로 승부 보는 포장마차형 음식점, 피맥의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화덕피자&맥주 전문점,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셰프가 조리장으로 있는 철판요리 전문점 등이 작은 차이로 자신들만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모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실만큼은 탄탄해 단골들이 셀 수 없다고.

이 밖에도 곱창, 칼국수, 수제비, 쪽갈비, 주꾸미 등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이 한두 곳이 아니다.

아름다운 한옥이 어우러진 문화거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는 이곳이 서촌임을 증명하듯 음식점의 간판이 모두 한글로 돼 있고, 청사초롱 조명으로 꾸며져 있어 분위기가 남다르다.

골목 안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한옥거리가 등장하는데, 차분한 색상과 단조로운 디자인은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한옥거리는 영화 '건축학개론', '수상한 그녀'

의 촬영지라 그런지 초행인 이도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엔 우리나라 천재 소설가 이상의 옛집 '이상의 집'이 자리해 있다. 이상이 3살부터 23살까지 살았던 집터 일부에 마련된 이곳엔 그를 기억하고자 이상의 작품과 관련 도서들이 꽂혀 있고, 고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차를 마시며 열람도 가능하다.

먹자골목으로 시작해 가치 있는 문화로 귀결되는 이곳은 주위 관광지와 함께 즐기면 그 의미가 두 배가 된다. '동의동 백송터-쌍홍문터-청와대 앞 분수대-청계천 발원지-윤동주 문학관-황학정'으로 이어지는 세종마을 투어,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로 이어지는 고궁 투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신문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성곡미술관-대림미술관'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투어를 추천한다.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다. 이곳은 주위의 전통적인 명소와 함께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곱창, 칼국수, 수제비, 쪽갈비, 주꾸미 | 각종 막걸리, 전
즐길거리 먹자골목, 한옥거리, 이상의 집, 상점가 축제
주변 관광지 동의동 백송터, 쌍홍문터, 청계천 발원지, 윤동주 문학관, 황학정
찾아가는 길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분

나만을 위한 힐링공간으로의 초대 구로시장

젊은 아이디어가 눈길과 웃음 이끌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가면 엔틱하면서도 트렌디한 공간을 만날 수 있다.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홍대 못지않은 감각이 여기저기서 묻어나지만, 사실 이곳은 60년 가까이 흐른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전통시장인 구로시장이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이다. 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 묘한 흥분감이 감돈다. 이유는 단순하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오는 전통 있는 점포들과 청년 상인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점포들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청년 상인들은 옛것과 새로운 것의 간극을 좁히고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복고적인 디자인으로 점포를 꾸몄다. 그들의 점포가 밀집된 구역은 '영프라자'. 그리고 이곳을 '구로 아날로그 단지'라 명명했다. 이는 디지털 단지인 구로구의 지역성을 착안한 감각적인 아이디어. 영프라자 안으로 들어서면 더 빛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눈길을 붙잡는다.

추억의 과자와 장난감을 파는 '추억점빵', 전국의 참기름을 구입할 수 있는 참기름 편집숍 '청춘주유소', 흡사 시골마을 슈퍼 같지만 해외 식품부터 잡화 등 흔히 볼 수 없는 상품까지 취급하는 '쉐 슈퍼', 다양한 디자인 상품이 진열된 '아트플라츠' 등 매력적인 점포들이 줄을 잇는다.

골목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에 적혀 있는 '골목을 헤매는 맛'이란 문구가 120% 이해될 정도로 어느 한 곳도 그냥 지나치기가 아깝다. 더욱이 그저 홍보나 정보 제공을 위해 써 붙인 안내지도 이곳의 재미 중 하나. 화장실 이용 시 흔히 '쌍쌍이'라 불리는 보드를 대여해준다는 문구에 보는 이 누구라도 웃을 수밖에.

시장의 매력만큼 맛집도 다양

전통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띤 구로시장과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남구로시장은 서로 붙어 있어 마치 하나의 시장처럼 보이는데, 이 남구로시장의 명물 '칠공주떡볶이'는 구로시장은 물론 이 인근을 찾는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들르는 명소

다. 7명의 할머니 상인이 모여 운영하는 떡볶이 포장마차인 이곳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온 터라 이제는 2대가 손을 맞잡고 오는 추억의 장소가 됐다. 색은 새빨강지만 맛은 그리 맵지 않은 떡볶이, 따끈한 어묵과 귀여운 꼬마김밥 모두 할머니 인심이 듬뿍 묻어 있다. 명물 맛집은 또 있다. 단돈 500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뭇난이 참쌀파배기, 커다란 크기에 놀라고 맛에 더 놀라는 왕만두, 구로시장 크레페라 구레페로 불리는 갖은 종류의 크레페 등 다양하다.

구로는 디지털 단지 외에도 각종 아울렛이 밀집해 있어 쇼핑의 메카로 통한다. 구로시장에서 간선버스 571을 타고 10분 정도면 마리오아울렛, 현대아울렛, W몰에 도착하니, 시장에 이어 저렴한 쇼핑을 즐겨도 좋겠다. 단 한복만큼은 예부터 명성 높았던 구로시장 한복거리에서 구입하길. 다양한 디자인은 물론 가격까지 저렴해 어느 곳보다 만족할 것이다.

구로시장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6분 걸린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제외하곤 언제나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떡볶이, 뭇난이 참쌀 파배기, 크레페, 순댓국 | 한복, 의류
즐길거리 영프라자, 칠공주 떡볶이, 먹거리 골목, 한복 전시관
주변 관광지 마리오아울렛, 현대아울렛, W mall
찾아가는 길 서울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6번 출구에서 도보 6분

전 세계를 담은 야시장이 특별한

부평깡통시장

낮도 밤도 환히 빛나는 시장

과거 미군부대에서 나온 각종 통조림 등 깡통 제품을 많이 판매했다는 의미로 이름 붙은 부평깡통시장. 부산의 중심에 자리한 이곳은 국제시장, 자갈치시장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다.

세월을 입고 남아버린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곳도 많지만, 이곳은 편리하고 깔끔하게 현대화된 공간과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공간이 공존한다. 마치 방문객에게 원하는 시장의 모습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는 듯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려. 환한 낮뿐 아니라 캄캄한 밤에도 얼마든지 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야시장을 개장한 것. 이곳 부평깡통시장의 야시장은 국내 최초로 연 상설 야시장으로, 일찍이 부산의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매일 불야성을 이루는 야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은 뭐니 뭐니 해도 군침 흐르는 먹거리. 특히 이곳엔 뻥한 시장 음식이 아닌 세계의 다양한 전통 음식이 준비돼 있어 방문객들의 호응이 엄청나다.

생선튀김의 일종인 일본 음식 '이카슈마', 베트남식 튀김 만두 '짜조', 인도네시아 볶음국수 '미고랭', 이탈리아 스프 '파네 스프', 북한 대표 길거리 음식 '오징어 두부밥' 등 나라를 대표하는 먹거리와 함께 낙지호롱, 냉면구이, 치즈구이, 납작만두, 녹두전, 치즈 그라탕, 곱창볶음, 칼라만시 음료 등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하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조명과 매주 펼쳐지는 공연은 야시장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돋운다.

세계 각국 수입제품이 즐비

맛있는 먹거리는 야시장이 열리기 전부터도 넘쳐난다. 우선 부산의 명물 비빔당면, 유부전골, 돼지국밥은 물론, 각종 국수와 순대볶음, 어묵은 어딜 가나 보장되는 맛으로 단골들을 부르고, 골목 사이에 숨어 있는 죽집골목에서는 녹두죽, 수수죽 등 흔하지 않은 다양한 죽들이 판매되고 있다.

야시장으로 전성기를 맞기 전, 부평깡통시장은 수입제품

으로 유명했다. 현재도 400여 개의 점포에서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태국, 남미의 각종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일본 가공식품과 각 맞춰 세워둔 미국 담배, 태국 현지 느낌 물씬 나는 화려한 장식품 등 곳곳이 이국적 풍경이다. 전통시장답게 세일 표지판이 심심치 않게 보여 반갑기 그지없다.

부산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이곳 시장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명소도 여러 곳. 먼저 도보로 10여 분이면 용두산공원에 갈 수 있고, 그곳에 세워진 부산을 상징하는 부산타워 전망대에서는 부산 중앙의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니 부산 여행이 처음이라면 강력 추천한다. 가장 가까운 바다를 찾는다면 시장서 차로 15분 거리에 송도해수욕장이 있다.

부산깡통시장은 부산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까지 시장이, 6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야시장이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시장 4번 출구 쪽으로 야시장, 2번 출구 쪽으로 패션거리, 1번 출구 쪽으로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다.

tip



먹거리·특산품 비빔당면, 유부전골, 돼지국밥, 순대볶음 | 부산어묵, 수입제품
즐길거리 깡통야시장, 죽집골목, 수입제품점포
주변 관광지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송도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 보수동 책방골목
찾아가는 길 부산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전쟁의 애환이 서린 가장 한국적인 시장

국제시장

거리와 골목마다 즐기는 방문객으로 빼곡

1945년 광복과 함께 역사가 시작됐고, 6·25전쟁 후 피란민들이 터를 잡으며 시장의 활기가 솟았다. 격변의 시대가 고스란히 담긴 이곳은 이름만으로도 울림을 주는 국제시장이다.

미군의 군용물자와 함께 부산항으로 밀수입된 온갖 상품들이 전국으로 공급되며 이름을 알린 이곳은 2014년 동명의 영화가 개봉되며 더욱 유명세를 탔다. 황정민·김윤진 주연의 영화 '국제시장'은 실제 이곳 시장을 배경으로 한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우리네 아버지들의 이야기로 전 국민을 넘어 세계인을 울렸다. 이는 국제시장을 방문하는 발걸음을 몇 배로 늘게 했고, 영화에 등장한 실제 점포 '꽃분이네'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몰렸다.

국제시장은 기계공구, 전기전자류, 주방기구, 의류 등이 주요 품목인 도·소매 시장이다. 6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미로처럼 얽힌 골목에는 식용품, 농수산물, 공산품 점포들이 들어서 있다. 부산 최대 그릇 도·소매시장으로 유명하며 한복, 잡화, 팬시용품, 안경 등도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다. 어묵과 원조선식, 수예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멀리서도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다.

현재 국제시장 주변은 크게 먹자골목과 젊음의 거리, 만물의 거리, 아리랑거리, 구제골목으로 구분된다. 먹자골목에서는 씨앗호떡과 팔빙수, 떡볶이, 물떡,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가 시선을 빼앗고, 만물의 거리에서는 거리명 그대로 온갖 잡화와 가방, 음향기기 등을 판매한다. 전통 공예품과 연예인 관련 특산품이 준비한 아리랑거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좋고,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수입한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는 구제골목은 늘 방문객이 줄을 서서 상품을 구경하는 곳이다.

부산의 축제와 함께하는 문화공간

문화예술 관련 축제가 많이 열리는 부산. 국제시장 일대도 축제지가 된다. 부산공연예술축제와 부산항축제, 해운대모래축제 등을 이곳에서 관람할 수 있어 시장 방문객도 축제

관람객도 늘 목적 이상의 만족을 얻는다고. 부산국제영화제의 거리 BIFF광장도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니 축제의 기분을 느끼기에 이보다 좋은 전통시장이 또 있을까?

역시 도보 5분 거리에 50여 년 역사 속 깊은 문화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보수동 책방골목이, 15분 거리에 6·25전쟁 당시 피란민의 애환이 서린 계단을 테마로 한 문화 공간 40계단문화관이 자리해 있다. 또 일반버스 186번으로 10여 분이면 영도대교에 도착한다. 국내 유일의 도개교인 영도대교에서 다리가 열리는(오후 2시부터 15분간) 색다른 구경을 하며 짧은 추억 하나 새기는 것도 좋겠다.

시장도, 인근 명소도 모두 문화적 정서 또는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어 시장과 연계해 즐기는 여행은 그 어느 때와 달리 목직의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남포역 1번 출구에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국제시장.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영업시간동안 보고 듣고 먹는 재미를 느껴보자.

tip



먹거리·특산품 씨앗호떡, 유부전골, 낙지볶음 | 한복, 그릇, 팬시용품, 수예품
즐길거리 점포 꽃분이네, 부산공연예술축제, 부산항축제, 해운대모래축제
주변 관광지 보수동 책방골목, 영도대교, BIFF광장, 40계단 문화관광테마거리
찾아가는 길 부산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7번 출구에서 도보 7분

●
펼떡펼떡 살아 숨 쉬는 생명력 가득

자갈치시장

활기와 매력, 먹거리 넘치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는 정겨운 캐치프레이즈로 유명한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시장. 바다 냄새 물씬 풍기는 부산을 가장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명소 중의 명소다.

영도대교 바로 옆 건어물시장에서부터 충무동 공동어시장까지를 통틀어 자갈치시장이라 부른다. 펼떡이는 각종 싱싱한 해산물들, 비릿하고 짭짤한 꼬막 자극하는 냄새, 역양은 강해도 정겹고 따뜻한 상인 아주머니의 사투리... 시장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는, 그저 시장을 걷는 것만으로 힘이 충만해지게 만든다. 그날 잡힌 싱싱한 생선은 어떻게 조리해도 최고의 맛이 나고, 즐길 수 있는 해산물 종류도 많고 많다. 친절한 상인들이 방문객 주머니 사정에 따라 생선도, 함께 즐길 해산물도 추천해주니 선부른 걱정은 넣어두자.

상가에 가면 1층에 갓 잡은 해산물이 바다를 이룬 수산물 시장이 있고, 2층은 회 센터로 구성돼 있다. 1층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해산물들은 바로 2층에 올라가 맛보면 된다.

상가 바깥 시장도 싱싱한 해산물들은 차고 넘친다. 또 어묵과 짜장면, 백반 등 맛집으로 소문난 다양한 음식점도 있는데, 이곳들은 모두 인근 주민들이 손꼽는 진정한 맛집. 곱장어구이와 곱창구이도 빼놓을 수 없는 명물 먹거리다.

바다와 먹거리와 사람이 더불어 몇 배의 에너지를 내뿜는 이곳이야말로 삶의 풍요 제대로 느낄 ‘살아있는 여행지’가 아닐까. 웃음이 나는 삶의 여행지가 바로 이곳이다.

명실상부한 관광명소와 어깨 나란히

에스리움이 남은 건어물시장과 부두, 멋지게 새 단장한 자갈치시장 건물 뒤편의 수변공원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시장 방문객 반, 관광객이 반이다. 왼쪽으로 보이는 영도대교와 코앞으로 보이는 우뚝한 영도공원의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은 봄비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 선착장 통통배로 영도 뱃길 여행도 해볼 수 있으니, 바람 없이 날씨 좋은 날이라면 추천한다.

자갈치시장은 남포동 골목, BIFF광장 등 외국인 관광객

들에게 사랑받는 유명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코스로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또 부산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이 가까워 크루즈 이용객이 관광하기에도 이만한 시장이 없다. 보수동 책방골목과 용두산공원, 감천문화마을, 40계단 문화관광테마거리, 부산타워 등과 연계한 여행 코스로도 제격. 이곳 시장과 함께 부산 3대 전통시장으로 손꼽히는 부평깡통시장, 국제시장을 연이어 들르는 관광객들도 많다고.

매년 10월이면 열리는 자갈치문화관광축제, 한류 스타들이 출몰동하는 원아시아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도 고민 없이 자갈치시장을 찾는다. 부산 사투리만 들리던 이곳은 어느새 다양한 외국어까지 함께 들리는 시장으로 변모한 것이다.

자갈치시장은 부산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10번 출구에서 도보로 4분이면 도착한다. 상가시장의 경우 1층 수산물 시장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층 회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한다. 해산물 즐기러 부산에 온 이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이곳으로 향하길 추천한다.

tip



먹거리·특산물 생선구이, 어묵, 짜장면 | 활어, 선어, 패류, 건어물
즐길거리 자갈치문화관광축제, 원아시아페스티벌, 부산공연예술축제
주변 관광지 남포동 골목, BIFF광장, 용두산공원, 감천문화마을
찾아가는 길 부산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
대구 최대 규모만큼 멋도 맛도 충만한

서문시장

지구별 전문화된 상품, 깔끔한 먹거리

조선시대 전국 3대 시장 중 한 곳이던 서문시장. 이곳은 대지 면적 2만7062㎡(8190평), 점포 수 약 5000여 개, 상인 수 2만여 명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주단, 포묵 등 섬유 관련 품목을 주로 거래하는 유명한 원단 시장으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대구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서문시장은 1·2·4·5지구와 동산상가, 건해산물상가 등 6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한복, 액세서리, 이불, 의류, 그릇, 건어물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는 이곳은 품질 좋은 원단만큼 먹거리 많기로 이름나 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일렬로 늘어선 각종 먹거리 점포들은 무척이나 깔끔한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질서 있고 정비가 잘된 데다 바닥도 깨끗해 기분부터 좋아진다.

대구의 대표 별미 납작만두, 꽃게튀김, 통통한 소리살만 골라내 꼬치에 쥬 소라꼬치, 짜장면 위에 삼겹살 조각이 덮여있던 얇혀 나오는 삼겹살짜장면 등 특색 있고 매력적인 먹거리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서문시장을 오래 다닌 이에게 이곳의 맛집을 꼽으라 하면, 십중팔구 고민도 않고 칼제비를 말한다. 1지구와 4지구를 이어주는 육교 아래 위치한 국수골목에서 맛볼 수 있는 칼제비는 인심 좋게 그득 담아낸 양과 저렴한 가격으로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인기가 좋다.

1·2·4지구에는 섬유 원단이나 한복, 의류 등과 같은 섬유 관련 제품을 파는 곳이 집중돼 있고, 가방이나 등산복 등 전문 의류를 파는 곳도 산재해 있다. 건해산물상가에서는 다양한 건어물이 판매되고 있으며, 다른 지구에도 각기 전문화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야시장의 매력에 국내외 관광객 풍덩

이곳 서문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카페가 많다는 것이다. 익숙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부터 개인 카페까지 총 20곳이 넘게 자리해 있다. 2지구 지하에도 최근 카페와 식당이 많이 생겨나며 젊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야시장이자. 올해 개장했지만 30만 명이상이 방문하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규모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크다.

350m 거리에 80여 개의 상점이 늘어선 서문야시장은 미식의 도시 대구의 진가를 제대로 드러낸다. 대구막창과 새우튀김, 회오리감자 등 먹거리가 가득하다. 맛은 물론이고 눈으로 얻는 행복도 충만하다. 야경용 마차도 탈 수 있으니 그 순간만큼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도 좋다.

서문시장은 지난해 외국인이 가기 좋은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접근성이 좋고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과 더불어 주변 관광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바로 동성로, 근대골목, 약령시장, 김광석거리 등의 인근 명소가 이곳 시장을 더욱 빛내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하철 3호선 서문시장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4분이면 도착하는 서문시장.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하며, 매달 첫째·셋째 일요일은 휴무다. 야시장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tip



먹거리·특산물 납작만두, 꽃게튀김, 삼겹살짜장면, 칼제비 | 주단, 포묵, 한복
즐길거리 야시장, 야경용 마차, 다양한 카페, 글로벌대축제
주변 관광지 동성로, 근대골목, 약령시장, 김광석거리
찾아가는 길 대구지하철 3호선 서문시장역 2번 출구에서 도보 4분

한약 향이 가득한 대구약령시장

건강에 관심이 많다면 약령시장으로

한약재를 알리기 위해 한방축제를 개최하고 한의약박물관 등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구 약령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약재 전문시장이자 무려 3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약령시장이 말해주듯 본래 한국은 산지가 많은 지형으로 산에서 우수한 약재가 많이 생산돼 한약재들이 풍부했고, 그 약재를 활용하는 힘도 뛰어났다. 그래서 약재 한 가지만 다루는 전문 시장이 수백 년 지속된 것은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백세시대가 되면서 건강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방축제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한방문화축제'는 매년 5월 초에 진행되며, 내년에는 40회를 앞두고 있는 오래된 축제이다. 한방문화축제에서는 약재썰기를 비롯해 약침짜기, 한방 환 만드는 체험까지 한의학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특히 한약재를 넣은 족탕에 발을 담그는 한약 족욕 체험은 마음까지 상쾌하게 만들어 매해 인기가 높다.

또 약령시장에 있는 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 가면 약전골목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 박물관 2층 한방체험실에서는 약재로 만든 족욕제로 하는 한방 족욕 체험, 한약재로 밥·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3층 한방역사실에서는 약전골목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박물관 광장에 있는 약령공원에서는 약초와 약용식물 등이 설명과 함께 작은 동산으로 조성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어주기도 한다.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영어, 일어, 중국어로 음성 안내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dgom.daegu.go.kr>)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근대로의 여행 '근대골목 투어'

대구는 6·25전쟁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아 '근대골목'을 견고히 보존하고 있어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간 듯한 느낌을 준다. 5코스로 나누어진 근대골목 투어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특별히 매주 셋째 주 목요일에는 '맛투어', 금요일에는 '야경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경우에 따라서는 해설 골목투어를 외국어도 진행하고하니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근대골목 투어가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맛집들이 즐비해 있다는 것이다. 투어를 하느라 지친 몸을 달래고 싶다면 한약재가 듬뿍 들어간 '약전한방삼계탕'으로 향해보자. 이곳은 약령시한의약박물관과 가까운 곳에 있다. 별식을 맛보고 싶다면 '미성당'의 납작만두도 괜찮다. 아주 얇은 만두피에 만두소는 당면과 파로 단순해 보이지만 보기와 다른 맛에 감탄하게 될지도 모른다. 미성당은 근대골목투어 코스를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구지하철 신남역 4번 출구에서 찾아갈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약령시장에서 약재를 소매로도 판매하니 사오는 것도 좋다. 간단히 차로 우려 마실 수 있는 각종 약재나 손상된 간 재생에 좋은 헛개나무 등이 추천할 만하다. 대구 약령시장은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또는 중앙로역에서 5분 거리에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약전한방삼계탕' 한방삼계탕, '미성당' 납작만두 | 400여 종의 한약재
즐길거리 한의약박물관, 한방문화축제(매해 5월), 약령공원
주변 관광지 근대골목, 서문시장
찾아가는 길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1번 출구, 2호선 반월당역 15번 출구

신기통보로 쇼핑해요 인천신기시장

도심 속 깔끔한 전통시장

인천국제공항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기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천을 방문하거나 잠시 환승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좋은 시장이다. 신기시장은 인천터미널역과 인하대학교에서도 찾아가기 쉽다. 특히 여느 시장보다도 일렬로 늘어선 깔끔한 가게 간판들이 눈길을 끌며, 아치형 유리지붕 아래 골목길 양쪽으로 150개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신기시장은 생필품과 농·수산물물을 위주로 소매 점포가 주종을 이루는데, 특히 각종 수산물과 1차 식품군을 구매하기 좋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만큼 신기시장은 우리나라 특유의 활기와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시장이다. 대표적으로 이곳에서는 신기통보라는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신기통보는 조선시대 상평통보를 본떠 만든 엽전 형태의 화폐인데 신기시장에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개당 500원에 판매되며, 500원의 가치로 통용된다. 신기통보 덕분에 입소문을 탄 신기시장은 이를 체험하러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부러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신기통보로는 각종 먹거리도 사먹을 수 있다. 신기시장 대표적인 먹거리는 바로 순대국과 오뎅. 시장 한 쪽에는 순대가게 10곳이 웅기웅기 모여 있는데 순대를 듬뿍 넣은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또 골목 중간쯤에 위치한 신기시장 어묵 코너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순한 맛, 매운맛, 엄청 매운맛 중에 골라 먹는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옛날 핫도그도 놓칠 수 없다. 소시지에 바삭한 밀가루 옷을 입혀 튀긴 핫도그(Hot dog)는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이지만 국민 간식으로 불리며 우리의 옛 향수를 자극한다.

도심으로 돌아간 듯 '송월동 동화마을'

신기시장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강사의 도움을 받아 한지공예, 자개공예, 민화 채색 등으로 다양한 전통 공예품을 직접 만들고 가져갈 수 있다. 체험비는 신기통보로 지불할 수 있으며 예

상 작업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다.

야구에 관심이 많다면 시장 내에 있는 야구역사거리에 가볼 것을 추천한다. 야구역사거리는 28m에 달하는 거리에 인천 야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해둔 곳이다. 이곳은 인천야구 100년사, 명예의 전당, SK와이브스존 등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신기시장 주변에는 즐길거리도 많다. 그중에서도 신기시장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약 8km)에 있는 '송월동 동화마을'은 이름이 말해주듯 모든 건물이 동화 속 건물들처럼 꾸며져 있다. 멋진 궁전과 성들로 가득한 이곳은 벽화를 입체적으로 꾸며놓아 어른들은 어릴 때의 훈훈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도심으로 돌아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마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신기시장은 지하철 1호선 주안역 2번 출구에서 버스 515, 515-1, 516, 65, 65-1, 780, 780-1, 81번 버스로 환승한 뒤 신기시장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tip



먹거리·특산물 순대국, 오뎅, 옛날 핫도그, 닭강정 등 | 각종 수산물, 1차 식품군
즐길거리 전통문화체험관(한지공예·자개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 야구역사거리
주변 관광지 송월동 동화마을, 월미도, 석모도
찾아가는 길 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2번 출구에서 515, 515-1, 516번 버스로 환승

석양이 멋진 노을장터

정서진중앙시장

소원을 들어주는 시장

해돋이가 아름다운 정동진이 있다면 노을이 멋진 정서진도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주택가 골목에 길게 이어진 정서진중앙시장은 최근 뜨고 있는 인근의 석양 명소 정서진의 유명세를 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시장 이름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정서진(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 서쪽에 있는 지역을 의미)은 노을장터라고도 불린다.

1989년에 개설된 정서진중앙시장은 여느 시장보다도 깔끔 하면서 시장 특유의 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쇼핑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깔끔한 시장 바닥에 널찍한 골목, 최신식 아케이드까지 갖추고 있는 이 시장은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다니던 복잡하던 시장을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이곳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정서진중앙시장(옛 서구중앙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성 있는 문화축제를 자주 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소원의 종이 대표적인데 고객이 엽서에 소원을 적어 종에 넣으면 매월 말 하나의 소원을 선정해 이뤄주고 있는 이벤트이다. 소원의 종은 2-3구역과 4구역 사거리에 설치돼 있다.

정서진중앙시장은 월미도와 가깝다. 시장에서 월미도까지는 차로 약 30분 거리(12km). 관광객이 즐겨 오는 만큼 월미도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월미 문화의 거리'에 조성된 친수공간에서는 탁 트인 인천 앞바다의 경관을 볼 수 있고, 월미도의 숨겨진 보석 '월미산 전망대'에서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특히 23m에 위치한 유리 전망대는 저녁에 피는 아름다운 노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트리아트·이색적인 먹거리

정서진중앙시장을 걷다 보면 바닥이 잘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카메라 아이콘과 발바닥 모양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는 트리아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바닥 한 곳에는 타일로 각 상점의 이름을 새겨 넣어두기도 했다.

정서진중앙시장은 관광객이 많은 만큼 길거리 음식 개발을 위해 매년 요리경연대회를 열고 있으며, 덕분에 흑마늘 닭강정, 숯불김짬뽕, 녹차 돼지껍데기 등의 이색적인 먹거리가 가득하다.

잘 숙성된 흑마늘을 첨가한 '떠꾸이네'의 '흑마늘닭강정'은 단맛이 가득한 닭강정과 달리 구수한 맛을 자랑하고, 숯불에 구운 김이 매콤한 짬뽕 위에 올려져 나오는 독특한 메뉴인 '큰집반점'의 '숯불김짬뽕'은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또 한방 재료를 사용해 돼지 잡내를 없앤, 인천의 족발 맛집 '고려왕족발'은 풍부한 육즙과 쫄깃한 식감으로 족발을 일부러 사러 오는 손님들로 늘 북적인다.

참고로 정서진중앙시장에는 전자 안내판이 있으니 이 안내판을 통해 위 상점들을 찾아가보자.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정서진중앙시장 홈페이지(www.정서진중앙시장.com)에 접속하면 시장 배치도와 시장 내 점포 소개가 잘 설명돼 있으니 쇼핑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정서진중앙시장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빨리 찾을 수 있다.

tip



먹거리·특산품 '떠꾸이네' 흑마늘닭강정, '큰집반점' 숯불김짬뽕 | '고려왕족발' 족발
 즐길거리 트리아트, 소원의 종, 이색적인 먹거리, 요리경연대회
 주변 관광지 월미도(월미 문화의 거리, 월미산 전망대), 차이나타운, 영종도
 찾아가는 길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2번 출구

상인들과 예술의 만남

광주1913송정역시장

옛 운치를 그대로

'1913송정역시장'. 시장 이름이라고 하기엔 독특하다. 또 시장이라고 하기엔 눈에 들어오는 간판부터가 젊은이들의 감각이 물씬 묻어난다. 1913송정역시장(이하 송정역시장)은 시장에 생필품을 사러 간다는 개념보다는 특별한 시장을 구경하러 간다고 보는 편이 더 나올 듯하다.

시장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913년에 개설된 송정역시장은 방문객이 하루 평균 400명에 달하는 광주의 핫플레이스다. 점포 수도 55개로 다른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상점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 더 정감이 가는 송정역시장은 해가 저 어둑해질 때 방문해도 좋다. 저녁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지고 불빛 때문에 시장 특유의 아담한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송정역시장은 상점 하나하나가 눈길을 사로잡는데, 건물의 리모델링을 최소화하고, 옛 정취를 그대로 살렸다. 나이가 지긋한 고객들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 세대들은 옛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상점 이름 하나도 즐겁다. 생과일 양갱·롤양갱을 파는 '갱소년', 또 오고 싶은 '또아식빵', 수제맥주집 '밀밭양조장'.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역서사소'다. '역서사소'는 "여기서 사세요"라는 광주 사투리를 활용해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사투리에 감각을 더했다. 사투리를 활용한 달력, 엽서, 노트, 액자 등의 상품을 판매한다. 액자에 있는 문구 '솔찬히 개미진광주로', '뿔뿔시 여즉도 안왔소'라는 카피를 보고 있으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역서 먹어보랑게

방문객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송정역시장.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승터에서 KTX 열차시간 전광판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옆에는 무인물품보관소가 있어 관광객들은 무거운 가방이나 배낭을 보관할 수 있다.

방문객들에게 송정역시장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 숨어 있다. 송정역시장 입구 한 쪽에는 모든 상점들의 개업

연도와 상호명을 새겨놓는가 하면, 가게 입구마다 놓여 있는 작은 스토리 보드에는 이 상점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송정역시장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먹거리. 송정역시장은 처음부터 과식하면 절대 안 되는 곳이다. 입구부터 천천히 둘러본 후 돌아오는 길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어보는 게 좋다. 삼뽕이(채소와 김치를 삼겹살로 돌돌 말아 구운 음식), 과일양갱, 썩 초코파이, 세계라면 등 이색적인 먹거리가 가득하다.

송정역시장까지 왔다면 예술마을 프로젝트를 재탄생한 '발산마을'에 들러보는 것도 괜찮다. 발산마을은 낙후됐던 마을에 벽화를 그리고 여러 조형물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마을 가장 높은 곳에는 약 3m 높이의 별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이는 별이 땅에 떨어진 형태로 마을 전망대 역할을 한다. 발산마을은 시장에서 약 30분(12km) 거리에 있다.

송정역시장 영업시간은 상점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광주지하철 1호선 광주 송정역 또는 KTX 송정역에서 5분 거리에 있다.

tip



먹거리·특산품 '갱소년' 생과일 양갱 '불교행이' 삼뽕이 | '썩's 초코파이' 썩초코파이
 즐길거리 옛 정취를 그대로 살린 각 상점들, 상점 앞에 있는 스토리보드
 주변 관광지 발산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찾아가는 길 광주 지하철 1호선 송정역 또는 KTX 송정역에서 5분 거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광주대인시장

예술적 감성이 묻어나는 시장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시장으로 잘 알려진 대인시장은 시장 내에 예술가들이 입주해 예술야시장을 개최하며 전국 각지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다. 공공미술작품은 물론 전통 시장의 푸근한 인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문객은 더욱 즐겁다. 아마 시장을 거닐다 보면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누비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만큼 대인시장이 볼거리가 많은 시장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1973년 광주의 중심지인 대인동에 자리 잡은 대인시장은 점포 수가 약 400개에 달하며, 생선과 건어물은 물론 수산물 거래량이 많다. 최근에는 횡집이 많이 생겨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만남은 광주비엔날레의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됐다. 일상 속에서의 예술을 표방한 이 프로젝트는 비어 있던 점포에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작업실로 활용하면서 대인시장을 예술시장으로 변신시켰다.

먼저 대인시장의 한 평 갤러리로 가보자. 한 평 갤러리는 한 평이라는 공간에 작가들의 영혼을 가득 담은 전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오픈한다. 주제도 '심연(深淵)', '오월, 어느 날', '한글공생전' 등으로 다양하다. 시장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빈 벽에 야구선수, 빈 상점의 셔터에는 역도선수 장미란, 시장을 돌며 리어가 행상을 하는 사람 등 벽화의 주제도 다양하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대인예술야시장이 가면 시장과 예술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거리공연을 즐기며 해물이 가득 들어간 오뎅, 소고기 큐브스테이크, 삼겹살김밥 등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맛보는 것은 덤이다.

아시아 예술의 중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인시장의 유명한 먹거리는 바로 순대국밥이다. 순대가 가득 들어 있는 순대국밥을 2인분 이상 주문하면 순대 한 접

시가 서비스로 나오는 푸짐한 인심도 느낄 수 있다. '나주식당'과 '영광식당'이 유명하다. 시장을 걷다 허기가 느껴진다면 '장깡' 앞의 장터국수집을 가보는 것도 괜찮다. 시원한 멸치국물에 말아내는 국수 한 그릇을 단돈 1000원에, 매콤한 비빔국수와 바삭하게 방금 구워낸 부추전은 2000원에 맛볼 수 있다.

대인시장까지 왔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가볼 것을 추천한다. 대인시장은 광주 지하철 문화전당역에서 가까운 데 대인시장에서는 도보로 약 20분(1300m) 정도면 갈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에 위치해 있으며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창조원복합관, 예술극장, 야외무대등을 갖춰 다양한 전시·공연, 예술 프로젝트가 연중 펼쳐진다. 2016년 9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광주비엔날레를 만날 수 있다.

KTX 광주역에서 대인시장까지는 택시로 기본요금 거리, 버스는 지원 151, 송정 98번, 금남 58번을 타면 된다.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 4가역 3·4번 출구에서 가깝다.

tip



먹거리·특산물 '나주식당' 순대국밥, '장깡' 멸치국수 | 무등산 수박, 춘설차, 진다리뽕
즐길거리 공공미술작품, 한 평 갤러리, 예술공방 및 작업실, 대인예술야시장
주변 관광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2016. 9. 2~11. 6)
찾아가는 길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 4가역 3·4번 출구

중부 최대 전통시장 대전중앙철도시장

3호선 먹자역에서 만나요

대전중앙철도시장(이하 중앙시장)은 중부권 최대 전통시장으로 볼릴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하며 중앙종합시장, 중앙상가지장 등 여러 개의 단위시장이 모여 있는 종합시장이다. 이에 중앙시장은 한의약거리, 한복거리, 먹자골목, 건어물거리, 생선골목 등으로 블록이 나누어져 있다.

중앙철도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곳은 대전역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상권이 형성되면서 접근성이 높아 하루에도 수백 명의 단골이 다녀간다. 중앙시장은 귀금속, 한복, 침구 등 혼수품을 주력으로 하며 의류, 그릇, 식품, 생활잡화 등의 점포 수가 3000여 개에 이른다.

시장은 '철도' 시장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테마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1호선은 웨딩을 테마로 메가한복역, 주단역, 혼수역으로 구성돼 있고, 2호선은 패션을 테마로 귀금속역, 침구역, 패션역으로 꾸며져 있다. 3호선은 푸드를 테마로 먹자역, 요리역, 잔치역 등으로 조성했다. 이처럼 중앙시장은 규모가 큰 만큼 볼거리가 다양하고, 이정표 역시 잘 갖춰져 있으니 찾아다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시장에는 중부 최대 전통시장 이외에도 먹거리 천국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따라 다닌다. 푸드를 테마로 한 3호선 먹자역 치킨골목으로 향해보자. '스모프치킨'은 대전 사람이라면 이미 맛봤을 테지만, 주인장은 간풍보약치킨, 자연맹초치킨, 매콤달콤졸강장치킨 메뉴를 추천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매장에는 테이블도 꽤 준비돼 있으니 맥주와 함께 즐기기 좋다. 스모프치킨과 함께 중앙시장에는 함경도식 만두국으로 유명한 '개천식당'이 있다. 토속적인 맛을 자랑하는 만두국은 특이하게 당면이 듬뿍 들어가 있고 사골로 육수를 내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싱그러운 자연에서 취하는 휴식

중앙시장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7km)에 있는 한밭수목원은 하루가 누엣누엣 해가 저물 때쯤 방문하면 한국의 다채로운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한밭수목원은 무

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열대식물원이 있는 동원과 시립미술관 및 문화예술의 전당과 가까운 서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목원에서는 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식물을 볼 수 있고, 탁 트여 있는 푸른 잔디 광장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준다.

대전을 왔다면 즐길거리가 많은 유성에 한 번쯤 가보는 것도 괜찮다. 유성은 특히 온천이 유명한데 여기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온천 족욕장이 있다. 유성온천공원에 마련돼 있는 족욕장은 천연 온천수를 사용하며 온도는 39~42℃를 유지하고,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족욕장 주위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가득해 마치 숲속에서 족욕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책을 읽으면서 족욕을 할 수 있도록 책도 구비해뒀다. 저녁엔 은은한 조명으로 분위기가 있게 즐길 수 있다. 중앙시장에서는 차로 약 30분 거리(12km)에 있다.

중앙시장은 KTX 대전역 맞은편에 있으며, 대전지하철 2호선 대전역에서 하차하면 가깝다.

tip



먹거리·특산물 '스모프치킨' 간풍보약치킨, '개천식당' 만두국 | '코끼리왕만두' 만두
즐길거리 철도중앙시장 컨셉처럼 3개의 호선(1·2·3호선)으로 나누어진 시장
주변 관광지 한밭수목원, 유성온천공원
찾아가는 길 KTX 대전역 맞은편에 위치, 지하철은 2호선 대전역에서 하차

반구대 구경하고 고래고기 맛보고 울산번개·야음상가시장

인심과 정이 넘쳐나는 시장

오랜 역사를 가진 울산번개시장은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이른바 '동네시장'이다. 이 때문에 상인과 주민 간의 유대감이 매우 돈독하며 인심 역시 넉넉하다. 최근에는 새롭게 단장해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번개시장에서는 힐링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과 주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오렌지색의 미니버스는 14인승 저속 전기자동차로 울산번개시장을 출발해 선암호수공원을 경유하여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는 1시간 코스이다.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2016년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1시, 12시, 15시, 16시 총 4회 운영하고 있다.

아침에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진 '번개시장'은 처음에는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시장이었지만 이내 주변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그 의미와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번개시장으로 출발했다. 울산번개시장 점포 수는 약 150개로 홈페이지(<http://www.ubgsijang.com>)에 시장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울산번개시장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시장 하나가 더 있다. 바로 야음상가시장. 야음상가시장은 주차가 편리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야음상가시장의 구조는 사거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 캐릭터 시계가 하나 놓여 있어 시장 구조를 파악하기 편리하다. 야음상가시장에서는 고객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잠시 쉬어가고 싶거나 시장 지도가 필요할 때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울산과 고래의 인연

울산에는 옛 고래잡이의 전진기지였던 장생포에 포경 유물을 수집해 보존·전시해 포경 역사를 재조명하는 국내 유일의 고래 전문 박물관인 장생포박물관이 있다. 고래생태형 체험관에서는 눈앞에서 유영하는 돌고래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유람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면 고래가 다니는

바다에서 고래의 숨결도 느껴볼 수 있다. 박물관은 번개시장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5km)에 있다.

여유가 있다면 번개시장에서 차로 약 1시간(33km) 거리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에 들러보는 것도 괜찮다. 울산에는 세계 최초의 고래 사냥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이다.

울산에 왔다면 고래고기를 맛봐야 할 차례. 고래고기는 '고래할매집'이 유명하다. 고래정식과 고래찌개, 육회해초비빔밥이 인기가 많다. 돌아올 때는 고래문화마을 내에 있는 고래빵연구소에서 고래빵 사오는 것을 잊지 말자. 울산의 특산물인 서생미역을 첨가한 고래 모양의 빵 속에는 커스터드 크림과 딸기잼이 들어 있다. 새끼 고래를 엮은 어미 고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빵은 '새끼를 낳은 어미 고래가 울산 바다의 미역을 먹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번개·야음상가시장은 KTX 울산역에서 급행 5001번을 타고 시청 앞에서 216번 버스로 환승하면 된다. 시간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tip



먹거리·특산물 '고래할매집' 고래고기 | 고래빵, 울산배
즐길거리 힐링투어버스 운행(2016년까지)
주변 관광지 장생포 고래박물관, 반구대 암각화, 신화예술촌, 선암호수공원
찾아가는 길 KTX 울산역에서 급행 5001번을 타고 시청앞에서 216번 버스로 환승

삶의 향기가 진동하는 울산신정상가시장

돼지국밥 맛보고 가이스

시장에서 생명력과 활기가 느껴지는 건 그 계절에 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닐까. 울산을 대표하는 신정상가시장(이하 신정시장)은 울산시청과 가까운 시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높아 하루 방문객만 1만 명이 넘는 곳이다. 약 400여 개의 점포로 이뤄진 신정시장에는 국밥과 칼국수, 보리밥 등 각종 먹거리부터 시작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수산물 등이 가득하다.

신정시장은 특히 돼지국밥의 성지이기도 하다. 부산에서 시작한 돼지국밥은 밀양과 더불어 울산에서도 유명한 음식이다. 이렇듯 신정시장 국밥골목에 있는 음식점들은 대체적으로 뛰어난 맛을 자랑하지만, 그중에서도 '박씨국밥'은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국밥과 함께 소수육도 추천할 만한데 깔끔한 맛과 푸짐한 양이 찾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신정시장은 칼국수도 유명하다. '동호칼국수'는 주문과 동시에 입구 한쪽에서 직접 반죽해놓은 칼국수 면을 삶아 육수에 말아준다. 냉국수도 국내산 콩으로 육수를 진하게 만들어 고소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칼국수골목 끝에 있는 '산동만두'도 가볼 만하다. 짜장면, 탕수육 등도 판매하고 있지만 직접 빻은 군만두, 찢만두가 맛있다. 고기로 가득 차 있는 만두에서는 진한 육즙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직접 만든 만두를 냉동시켜 포장판매도 하고 있으니 사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편, 울산은 오래전부터 동해안의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과육이 부드럽고 향이 풍부한 배를 재배한다. 돌아올 때 울산 배 사오는 것을 잊지 말자.

도심 내 힐링 공간

한국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울산에 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높이 뻗어 있는 대나무와 청량한 기운은 시름을 잊게 해준다. 이는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을 따라 10리

(4.3km)에 걸쳐 이어지는 대나무숲, 바로 '십리대숲길'이다. 십리대숲길이 있는 태화강대공원은 신정시장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3km)에 있다.

또 울산의 유명한 관광지로 꼽히는 대왕암공원은 공원 입구에서 등대까지 600m의 송림이 우거진 길이 이어지는데, 키 큰 소나무 그늘이 아늑함을 선사한다. 송림을 벗어나면 탁 트인 해안절벽이 보이고 바위를 이어주는 철교를 건너면 대왕암에 발을 디게 된다. 이곳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수려한 절경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대왕암공원은 신정시장에서 약 30분 거리(18km)에 있다.

이 외에도 가볍게 산책을 즐기려면 신정시장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5km)에 있는 선암호수공원으로 향해보자. 선암호수공원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 좋다. 잔잔한 호수 주위로 푸른 나무를 보며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참고로 이 공원은 꽤 넓으니 입구에서 코스 안내도를 잘 보고 출발해야 한다. 신정시장은 KTX 울산역에서 급행 5001번을 타고 시청 앞 정류장에 하차하면 된다.

tip



먹거리·특산물 '박씨국밥' 돼지국밥, '동호칼국수' 칼국수 | 미역, 수제어묵
즐길거리 시장 내 먹자골목(순대국밥, 칼국수) 등
주변 관광지 태화강대공원, 대왕암공원, 선암호수공원
찾아가는 길 KTX 울산역에서 급행 5001번을 타고 시청앞 정류장에 하차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광명시장

1000원의 행복

광명시장에 가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우리의 삶은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듯 갖 조리한 신선하고 따뜻한 음식들을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1000원은 버스 한 번 못 타는 돈이지만 광명시장에는 1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많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떡갈비다. 종이컵에 담아주는 '장릉왕떡갈비'의 두툼한 떡갈비는 광명시장에 장보러 왔다면 꼭 사야 하는 필수 먹거리로 이 떡갈비를 사러 광명시장에 일부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 떡갈비 10장을 사도 1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정말 착한 가격이다.

떡갈비와 함께 유명한 곳은 '홍두깨 칼국수'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도 줄서 있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이곳에서는 칼국수를 3000원, 잔치국수를 1500원에 맛볼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칼국수 면은 홍두깨와 손을 사용해 쫄깃한 맛을 자랑하며 진한 멸치 육수는 하루 종일 우려내 시원하면서도 깔끔하다. 또 주인 어르신의 따뜻한 배려로 다양한 시장의 주전부리를 사와서 칼국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또 광명시장에서 놓치면 안 될 메뉴 한 가지가 더 있다. 먹자골목 중심에 위치한 '광명할머니 빈대떡'은 고소한 냄새로 지나는 이들의 후각을 자극하고 발걸음을 사로잡는다. 녹두를 직접 맷돌에 갈아 만드는 것이 이곳의 포인트, 겉은 튀긴 것처럼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빈대떡을 막걸리와 함께 즐기면 그야말로 꿀맛이다.

한편 광명시장은 점포가 400여 개에 시장 출입구가 9개나 되는데, 전국에서도 손으로 꼽을 정도의 큰 규모와 다양한 아이টে임을 자랑한다. 더불어 광명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관광객 몰려드는 광명동굴

광명시는 광명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광명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해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순환형 투어버스를 운영하

고 있다. 투어버스는 광명동굴 외에도 광명의 구석구석을 알차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KTX 광명역 2번 출구에서 시작하는 투어버스는 광명동굴-밤일음식문화거리-광명전통시장(7호선 광명사거리역)-7호선 철산역-충현박물관을 거쳐 KTX 광명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총 6개의 정거장을 순환하는 버스는 하루 4회(오전 9시 30분·11시, 오후 2시·3시 50분) 운행하며 투어버스를 타고 가다가 가고 싶은 곳이 나오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긴 후 지정된 승차장에서 다음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중에서도 광명동굴은 광명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져 꽤 운치 있는 한국 동굴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동굴의 연중 평균 기온은 약 12℃, 동굴 초입은 옛 광산을 묘사한 그림과 탄광 열차, 광산의 역사를 알려주는 사진들로 채워져 있다. 동굴 안에는 국내외의 와인인 전시·판매되고 있으며 시음도 가능하다.

광명시장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로 나와 서 좌회전한 뒤 조금만 걸어가면 왼쪽에 시장 입구가 보인다.

tip



먹거리·특산물 '홍두깨 칼국수', '광명할머니 빈대떡' | '장릉왕떡갈비'
즐길거리 전국에서 손꼽히는 큰 규모의 시장, 천원으로 살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주변 관광지 광명투어버스 광명동굴, 충현박물관, 광명업사이클 아트센터
찾아가는 길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상상 그 이상

역곡상상시장

이야기가 넘치는 시장

역곡상상시장(이하 역곡시장)이 위치한 부천은 영화제와 만화축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으로 만화와 영화 콘텐츠가 풍부한 지역이다. 만화시장이라는 콘셉트를 정한 역곡시장은 백곰 캐릭터를 활용해 역곡시장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들었고, 시장 안에서는 곳곳에 있는 백곰과 사진 찍는 방문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역곡시장에는 다른 시장에 없는 특별함이 있다. 보통 좁은 골목이 이어지는 여느 시장에 비해 역곡시장은 유모차 서너 대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공간을 여유롭게 했다. 또 시장에서는 소포장된 가공식품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구성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고객지원센터 앞마당에 마련된 트리아트 포토존에서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 내 북카페에서는 가끔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역곡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돈가스 and 닭강정이 가장 유명하다. 수제 돈가스 전문점 '바사삭'에서는 등심돈가스·치킨가스 3장에 5000원에 판매하며, 간단하게 맛볼 수 있는 돈가스 꼬치를 1000원에 판매한다. 고기를 아낌없이 두툼하게 넣어 깨끗한 기름에 튀겨낸 수제 돈가스는 줄을 서야만 살 수 있다. 역곡시장의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032옛날통닭'은 시간이 지나도 살아 있는 부드러운 살코기와 바삭한 맛이 일품이다. 닭강정 한 박스에 8000원, 옛날 통닭은 5500원에 맛볼 수 있다. 통닭은 주문하면 그때 바로 튀겨서 양념에 버무려준다.

한옥체험마을·부천시티투어버스

사통으로 발달된 교통편의성을 자랑하는 부천시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체험마을과 다양한 주제로 꾸며진 박물관 등이 포진해 있다. 부천의 대표 문화관광단지인 한옥체험마을은 역곡시장에서 차로 30분(9km) 거리에 있어 가기

쉽다. 한옥체험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통·민속문화를 전시·체험·시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있으며,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언제나 다례(전통차)체험을 할 수 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자에 한해 전통 혼례를 진행해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는 곳이다.

또한 부천시는 매주 토요일 열리는 '뽀뽀(funfun) 부천시티투어'를 통해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저 가벼운 옷차림과 가방 하나면 지하철과 버스로 역곡시장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부천시티투어버스는 판(A)·타(B)·지(C)·아(D)의 4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역곡시장을 경유하는 코스는 '아(D)' 코스로 옹기박물관-부천종합운동장-역곡북부시장(중식)-웅진플레이도시(위더파크) 순으로 돌아볼 수 있다. 해당 투어는 2016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부천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역곡상상시장은 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가톨릭대) 2번 출구로 나와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바사삭' 돈가스, '032옛날통닭' 닭강정 | 인테리어 소품, 액세서리
즐길거리 트리아트 포토존, 장난감도서관, 북카페
주변 관광지 한옥체험마을, 부천시티투어 버스운행(2016년 11월까지)
찾아가는 길 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가톨릭대)2번 출구

먹거리와 관광의 어울림 구리전통시장

활기참이 가득한 시장

구리시와 남양주시 유일의 전통시장인 구리전통시장(이하 구리시장)은 북쪽으로 동구릉을 이고 있고, 서쪽으로는 망우산을 품고 있으며,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가 휘돌아나가는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명당으로 손꼽힌다.

이런 구리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언제나 활기차고 북적거린다. 구리시장 입구에는 외부 벽면이 투명유리로 된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는 일명 '보이는 라디오'로 시장 구석구석의 소식을 알리고 이웃의 소소한 삶의 얘기도 들려주는 구리시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라디오와 함께 구리시장의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먹거리에 있다. 구리시장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곱창. 돌다리 사거리로 가면 곱창골목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20곳이 넘는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곱창골목에는 '원조유박사곱창(031-568-0320)', '보배곱창(031-563-5005)', '이모네곱창(031-552-9636)' 세 곳이 터줏대감 역할을 한다.

또 경기도 명품 접포로 선정된 '탕스냉면'은 냉면을 시키면 탕수육이나 숯불고기 한 접시를 제공하고,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 유명해진 '고향김밥'의 국물떡볶이 역시 맛보려면 줄서서 꽤 오래 기다려야 한다. 구리시장의 명물로 불리는 치즈·매운·감자 핫도그는 간단한 요깃거리로 먹어볼만 하다.

한편 구리시장에서는 장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보기 도우미가 장을 대신 봐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고 인근 거리까지 배송 등을 해준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되며 매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자. (문의 031-568-7111)

동구릉·호수공원·아차산 산책 코스로 제격

구리는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곳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풍부한 대중교통 기반을 갖고 있어 시장 인근에 위치한 다양한 관광지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먼저 구리시 관광으로 추천할 만한 곳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이다. 구리시장에서 2km 거리에 있는 동구릉은 유교 이념과 풍수지리 사상 등을 바탕으로 조선만의 고유한 왕릉 형태를 지니고 있다. 전통문화를 담은 독특한 건축 양식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매우 빼어나다.

동구릉 옆에 있는 장자호수공원에도 들러보자. 아직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호젓하게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이다. 이곳은 3.6km에 이르는 산책로와 새들이 모여드는 섬으로 수중식물, 습지식물 등의 생태학습장이 구비돼 있다.

이 밖에도 서울과 구리에 걸쳐 있는 아차산은 해발 300m의 다소 낮은 산으로 가벼운 트레킹에 안성맞춤이며, 특히 옛 광진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며 바라보는 산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매우 아름답다.

구리시장은 중앙선 구리역 3번 출구에서 버스 3, 30, 15, 10-5, 간선 201번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10분이면 갈 수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원조유박사' 곱창, '고향김밥' 국물떡볶이 | 농수산물
즐길거리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다양한 식품 및 간식거리
주변 관광지 동구릉, 장자호수공원, 아차산
찾아가는 길 구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그리운 옛 추억이 물씬 양평물맑은시장

공기 좋고 물 좋은 양평의 친환경 농산물

경기의 3대 장이자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평물맑은시장(이하 양평시장)은 상설시장 겸 오일장으로 넓은 공설 주차장에서 제법 큰 규모의 장이 매월 3, 8, 13, 23, 28일에 열린다. 이 시장은 점포 수가 400여 곳에 달하며 특산물로는 산나물, 은행 등이 있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가 특히 활발한 양평시장에서는 양평에 있는 30여 농가가 참여해 정성껏 재배한 친환경농산물만을 판매한다. 이곳은 서울에서 차로 5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평시장은 그야말로 '옛날 시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시장 한편에서는 골동품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오래된 뽕튀기 기계가 돌아가고 있고, 이제는 그 자취를 감춘 '장돌뱅이'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시장 중앙에 펼쳐진 먹거리 골목에는 어린 시절 즐겨먹었던 핫도그와 찹쌀도너츠는 물론 부침개, 수수부꾸미, 족발, 잔치국수 등이 즐비하다. 제법 큰 규모로 열리는 양평시장은 그저 한 바퀴 휘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그리운 옛 추억이 떠오르곤 한다.

양평시장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이 서는 날이면 시장 상인들과 양평 주민들이 방송을 진행한다. 시장을 거닐면서 듣게 되는 이 라디오 방송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 거리에서는 열차 모양의 야시장이 열린다. 야시장에는 벼룩시장과 함께 열차 모양으로 된 각각의 부스에서 공예품과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며 각종 공연으로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준다.

양평 여행의 필수코스 '두물머리'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선지해장국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다. '청해식당(031-772-4784)'은 소박하고 작은 식당이지만 30년의 내공을 지니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

에 소개됐던 곳이다. 조금 더 특별한 별식을 맛보고 싶다면 양평역 1번 출구 건너편에 있는 '몽실식당(031-771-9296)'의 도래장도 좋겠다. 돼지 특수부위인 도래장은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흑돈 스테이크 역시 인기가 좋다.

양평에 왔으면 꼭 가봐야 할 곳, 바로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줄기가 만나는 두물머리다. 두물머리는 봄가을 새벽 물안개가 피어오를 때는 강렬한 황홀감을 선사하며, 400년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와 황포 돛배로 그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맞은편에 있는 세미원은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름이면 사람 키만큼 자라 올라 연못을 가득 메운 연꽃들이 연못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두물머리는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20km)에 있다.

양평물맑은시장은 서울지하철 중앙선 용문행 열차를 타고 양평역 1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홈페이지(<http://ypsijang.co.kr>)를 참고하면 시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청해식당' 선지국, '몽실식당' 도래장, 수수부꾸미 | 친환경농산물
즐길거리 야시장, 친환경 농산물, 라디오방송
주변 관광지 두물머리 세미원
찾아가는 길 서울지하철 중앙선 양평역 1번 출구 도보 10분거리

패션 1번지·통닭거리 유명한 수원남문시장

의류·원단가게 많은 리틀동대문 '팔달문시장'

경기도 수원에는 팔달문을 중심으로 9개의 시장이 모여 있다. 수원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팔달문시장부터 영동시장, 지동시장, 시민상가, 미나리광시장, 못골종합시장, 남문패션1번가, 남문로데오시장, 구천동공구상가까지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9군데 시장은 한데 묶어 수원남문시장으로 통한다. 시장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데 수원 방문이 처음이라면 팔달문시장과 영동시장부터 둘러보자.

'리틀동대문'이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의류점포와 원단가게가 즐비한 팔달문시장은 먹거리보다 쇼핑에 중점을 두면 좋은 곳이다. 백화점 못지않은 양질의 옷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전통시장에서 보기 힘든 브랜드 매장이 다수 입점해 있어 수원 주민들 사이에서 '패션 1번지'로 불린다. 의류시장이 크게 부각되는 팔달문시장이지만 시장 곳곳에 숨겨진 먹거리도 놓칠 수 없다. 이곳에는 순대타운을 비롯해 코끼리만두, 추억의 도너츠 등 다양한 별미가 가득하다. 속이 꽉 찬 만두를 조심스레 빚는 모습, 맛깔스러운 빛깔로 튀겨진 도너츠의 고소한 기름 냄새는 지나는 발길을 붙든다.

특히 남문대로에서 가구거리 사이에 조성된 '통닭거리'는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먹자골목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배경으로도 등장해 팔달문시장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운 자태의 한복이 한자리에 '수원영동시장'

팔달문과 수원천 사이에 위치한 영동시장은 수원뿐만 아니라 안양, 용인 일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시장이다. 시장 내에는 170여 개의 점포가 성업 중인데, 한복 특화시장이라 불릴 만한 규모답게 한복 점포만도 40곳이 넘는다. 가격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한복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영동시장을 지나다 보면 매장마다 한복을 입어보

는 외국인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을 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이와 함께 영동시장은 한복과 연계된 포목과 커튼, 수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며 경기도 남부 최고의 포목 시장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예전에는 영동시장에서 혼수용품을 모두 구매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규모와 다양한 상품군은 여느 백화점 못지않다.

시장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는 수원남부시장 일대를 모두 구경했다면, 연계해서 즐길 만한 관광코스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행궁동 벽화골목 등을 추천한다.

이 중 수원화성은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걷기 좋은 코스로 유명인데, 성곽을 따라 이어진 길이 운치 있고 옛 성벽과 도성의 빌딩이 어우러진 경치도 볼 만하다.

방문시기를 잘 맞춘다면 수원국제음악제와 수원연극축제, 수원제즈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축제도 즐길 수 있다. 수원남부시장은 수원역에서 도보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불편 없이 둘러보기 좋다.

tip



먹거리·특산물 순대타운, 코끼리만두, 통닭 | 한복, 의류, 포목
즐길거리 수원국제음악제, 수원연극축제, 수원제즈페스티벌
주변 관광지 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행궁동 벽화골목
찾아가는 길 수원역에서 도보 15분

대한민국 으뜸 5일장 정선아리랑시장

כות등치기국수·메밀전병 등 별미 가득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정선아리랑시장(이하 정선시장)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5일장답게 그 면적도 매우 넓다. 장이 서는 날이면 약 1km에 걸쳐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 면적이 무려 8000㎡(약 2400평)에 이른다. 모여드는 상인들은 1000여 명에 달하고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이 시장을 찾아올 정도로 이제는 정선에서도 손꼽히는 관광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

정선아리랑열차로 유명해진 이곳에는 어떤 재미가 숨어 있을까. 한옥 스타일로 만들어진 정문을 지나면 양쪽으로 자리 잡은 각종 먹거리 점포와 통로 한가운데 줄지어 늘어선 노점들이 나오는데, 구수한 냄새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곤드레밥과כות등치기국수, 메밀전병은 놓치지 않고 먹어봐야 하는 이곳의 명물이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כות등치기국수는 쇠고기 육수에 감자 웅심이와 메밀국수를 넣어 먹는 것인데, 담백하고 시원한 맛에 놀라고 4000~5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반한다.

정선시장에서는 계절에 따라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구입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매년 늘고 있다. 참고로 정선시장에서는 봄에는 냉이, 달래, 참나물, 곰취 등의 각종 산나물을 주로 취급하며, 여름에는 찰옥수수과 감자를 주로 판매한다. 또한 가을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과 머루, 다래, 아가위, 산초 등의 산열매가 많이 나오며, 겨울에는 근처 조양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끓인 매운탕과 수수리취떡, 메밀전병, 옥수수술 등의 지역 특산품이 판매된다. 이 밖에도 갖은 산나물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산채정식과 정선의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황기가 들어간 황기백숙 등도 정선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꼽힌다.

시장을 넘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관광도시로 이름난 정선에 왔으니 신나는 체험 코스는 필수다. 정선시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 병방치스카이워크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해발 583m의 절벽 끝에 길이 11m

의 U자형으로 돌출된 구조물 바닥에 강화유리를 깔아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입장료(어른 2000원, 어린이·청소년 1000원)와 집와이어 이용료(4만 원)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정선시장 인근으로 화암동굴, 아라리촌, 레일바이크, 약초산방 등 정선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가 있는데 시장 투어와 함께 즐길 만한 코스로 제격이다.

옛 주거문화를 재현한 아라리촌에는 다양한 전통기와집 등 볼거리가 많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방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정선시장은 정선역에서 1.5km 떨어져 있으며 역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조양강을 건너면 시장을 알리는 간판을 만날 수 있다. 정선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1.6km 거리로 승용차 이용 시 5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참고로 정선아리랑열차는 매일 오전 8시 20분에 청량리역을 출발해 민동산역을 거쳐 정선역과 아우라지역까지 운행한다.

tip



먹거리·특산물 곤드레밥,כות등치기국수, 메밀전병 | 각종 산나물
즐길거리 정선아리랑 인형극, 5일장 장터 공연
주변 관광지 병방치스카이워크, 화암동굴, 레일바이크
찾아가는 길 정선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용차로 5분

강원도 맛 기행의 명소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닭강정·아바이순대 놓칠 수 없지!

관광·수산업이 발달한 속초에 위치한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이하 속초시장)은 먹으러 가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맛집’이 숨어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아외주차장에 차를 대고 길을 건너서부터 맛집이 시작되는데, 시장 골목 초입에 위치한 씨앗호떡집이 그곳이다. 이곳은 늘 붐비는 점포이기 때문에 줄을 서야 하는 수고로움은 기본이다. 씨앗호떡은 일반호떡과 달리 해바라기 씨, 땅콩 등 견과류가 듬뿍 들어가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호떡 하나 들고 시장 안쪽으로 한참 가다 보면 닭강정골목을 찾을 수 있는데, 매콤달콤한 소스로 버무려진 닭강정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속초 명물이다.

닭강정골목에 들어서면 점포 한편에 택배 발송을 위해 썬이 썬이 박스가 먼저 눈에 띄고 선풍기 바람에 닭강정을 식히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인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 골목에는 전국 단위로 명성을 얻고 있는 ‘만석닭강정’이 있는데, 여기도 씨앗호떡집과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다.

여행 일정상 지체할 시간이 없거나 번거로움을 덜고자 한다면, 길목에 이어져 있는 다른 닭강정 점포들의 맛도 훌륭하니 다양한 맛을 경험해보길 권한다.

이와 함께 속초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 바로 아바이순대다. 이 순대는 돼지의 대창 속에 찹쌀밥과 여러 가지 부재료를 넣고 찌낸 것으로, 타 지방에서 찹쌀밥을 넣지 않고 만든 순대와는 색다른 특징이 있다. 속초시장 내에는 물론 시장 인근에 아바이순대타운이 있으니 둘러보길 추천한다.

관광도시답게 즐길거리 풍성

속초시장은 군침 도는 먹거리부터 오감을 자극하는 이색 풍물 볼거리, 주말에 이어지는 이벤트 공연, 야간에 화려하게 변신하는 루미나리에 빛의 거리 등 볼거리가 풍성하니 눈요기하기 좋은 곳으로 손색없다.

시장 투어를 마쳤다면 속초 어디부터 둘러보면 좋을까.

속초시장 인근에 위치한 관광지부터 살펴보면, 작은 고기잡이배와 낚싯배가 드나드는 ‘장사항’, 맑고 깨끗한 물이 장관을 이루는 ‘등대해변’, 속초팔경 중 하나인 속초등대가 보이는 ‘등대전망대’ 등이 있는데 이곳은 모두 관광객들에게 여행 필수코스 상위권으로 꼽힌다. 속초시장에서 장사항은 2km, 등대해변은 1.6km, 등대전망대까지는 1.8km 남짓해 모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또 시장 인근에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낙산사와 오색약수터도 있으며, 해안에는 이름난 해수욕장들이 연이어 있는데 설악, 낙산, 수산포, 동호, 하조대, 남해 해수욕장 등이다.

속초시장은 서울 기준으로 동서울터미널이나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속초행 버스 승차 후, 속초 시내에서 시내버스로 환승해 ‘관광수산물시장’ 정류장에 하차하면 된다.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속초시장까지는 약 800m로 도보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한 시장바닥 구석구석에 그려진 젊은 감각의 트리아트 존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구역이다.

tip



먹거리·특산물 닭강정, 아바이순대, 씨앗호떡 | 옥수수, 참깨
 즐길거리 루미나리에 빛의 거리, 아바이갤러리
 주변 관광지 장사항, 등대해변, 등대전망대
 찾아가는 길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 15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원주중앙시장

특색 있는 먹거리 ‘만두골목·소고기골목’ 눈길

원주시의 중앙에 자리 잡은 원주중앙시장(이하 중앙시장)은 원주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문화의 거리와 연결돼 있다. 중앙시장은 접근성이 좋다는 점, 전통시장이라는 이미지와 상반되게 청년상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점이 특색 있다. 원주 전통시장의 모습과 한국 청년들의 열정을 두루 엿보고 싶다면 중앙시장을 꼭 방문해보자.

우선 1층은 여느 전통시장과 비슷하게 채소와 과일, 생활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던 터줏대감 상점들을 지나면, 곳곳에 숨겨진 ‘떡자골목’을 만날 수 있다. 각종 만두요리를 맛볼 수 있는 ‘만두골목’과 특수부위를 숯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깃집이 모여 있는 ‘소고기골목’은 이곳의 명물이다. 고기 1인분이 2만 5000원에서 3만 원 내외로 저렴한 가격과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참고로 만두골목에서 소문난 인기 점포 ‘이모네만두’를 먹어보고 싶다면 서둘러야 한다. 보통 20분 내외로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붐비는 시간은 피해 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와 함께 추어탕의 원조가 원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맛집도 곳곳에 널려 있으니, 시장 먹거리를 찾는다면 추어탕도 추천한다. 원주식 추어탕은 된장 대신 고추장으로 칼칼한 맛을 내고, 한 그릇씩 뚝배기에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술에 끓여 떠먹는 것이 특징이다.

예술이 깃든 시장, 젊은 층·관광객 견인

먹거리골목을 지나 1층 한 바퀴를 다 돌았다면 2층으로 올라가보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이하 미로예술시장)’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지나 계단으로 올라가면, 시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신세계가 펼쳐진다. 계단 벽에 붙어 있는 아기자기한 상호를 시작으로 화려한 꽃그림, 고양이로 도배가 된 귀여운 벽화, 옛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품 등에서 예술시장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청년상인들이 직접 꾸민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멋스럽게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

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재미다.

미로예술시장은 2013년부터 젊은 예술인들이 터를 잡으면서 ‘청년몰’로 재탄생한 곳이다. 현재 카페와 공방, 갤러리 등 매력 만점의 상점 7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이곳에는 눈으로 구경하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오감으로 체험하는 즐길거리도 가득하다. 매월 둘째 주 주말에는 청년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폴리마켓이 문을 열고, 미술작품 및 지역사회 이슈 등을 전시하는 골목미술관도 운영되고 있다.

미로예술시장에서 내려와 원주를 더 둘러보고 싶다면, 중앙시장에서 약 20km 떨어진 치악산국립공원과 한솔오코밸리, 14km 거리에 있는 치악산 자연휴양림 등을 추천한다. 치악산 자연휴양림은 산책로를 따라 2시간 정도 오르면 남대봉, 비로봉 등 치악산 줄기는 물론 원주시내까지 조망이 가능한 벼락바위봉에 닿을 수 있다.

원주중앙시장은 원주역에서 1km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승용차로 3분, 도보로 15분 내에 도착할 수 있으며 원주고속버스터미널과는 2.3km 거리에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소고기, 만두, 추어탕
 즐길거리 매월 둘째 주 주말 열리는 ‘폴리마켓’, 수공예 특화시장
 주변 관광지 치악산국립공원, 한솔오코밸리
 찾아가는 길 원주역에서 약 1km, 승용차로 3분

동해안의 낭만이 있는 곳 북평민속5일장

5일마다 열리는 3·8장의 재미

전국 3대 5일장으로 꼽히는 북평민속5일장(이하 북평장)은 매월 끝자리 3·8일, 동해항 인근 북평동에서 열린다.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1000여 명의 상인들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특히 북평장은 여행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동해로 휴가를 온 관광객들이 몰려 연일 북새통을 이룬다. 바다수영 하기 좋은 여름에 방문한다면 휴가지로 손색없는 북평장은 필수 코스다. 그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양하다.

북평장은 작은 규모로 열리는 5일장이지만 갖가지 해산물을 파는 어물전, 텃밭에서 재배한 제철 채소와 쌀을 파는 채소전·미전을 비롯해 삼삼오오 모여 장거리를 다듬는 상인들의 정겨운 모습 등 시장 구석구석을 구경하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어물전은 철 따라 거래되는 해산물이 조금씩 다른데, 주로 묵호와 삼척 등 동해안 일대에서 잡은 오징어, 가자미, 청어 등이 많이 거래된다. 미전과 채소전은 북평우체국 앞에서 열리며 쌀과 보리, 밀, 수수 등 각종 곡류와 계절별 채소를 구매할 수 있다.

추억의 먹거리·시장 인근 볼거리 풍성

5일장에서는 어떤 음식을 맛봐야 할까. 장터를 둘러보다 허기가 느껴진다면 소머리국밥과 감자전, 손칼국수, 보리밥 등 추억의 먹거리로 입맛을 살려보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메밀전병과 골뱅이꼬지도 북평장의 인기 메뉴다.

특히 북평장은 소머리국밥이 유명한데 이는 폭 끓인 곰국에 무와 소머리고기, 우거지, 토란줄기 등을 넣고 다시 끓여낸 것으로 담백하면서 진한 맛이 일품이다. 장터 한쪽으로 국밥집 몇 곳이 모여 있는데 어느 집을 가도 평균 이상의 맛을 자랑한다.

매일 열리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북평장에 왔다면 특산물 구매는 필수. 이곳에서는 오징어와 다시마가공품, 영지버섯

이나 홍화정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선물용 제품을 고민한다면 구매리스트에 올려두는 것도 좋다.

북평장이 열리는 동해시는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다. 초대바위로 유명한 추암해변, 고운 백사장이 인상적인 망상해수욕장을 비롯해 무릉계곡과 두타산 등이 있다.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천곡항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시장을 모두 둘러본 뒤 인근에 가까운 여행 코스를 찾는다면 망상해변(시장에서 28km)과 묵호등대(11km), 묵호항(8km), 추암조각공원(4km) 등을 추천한다. 묵호등대는 연인들에게 알려진 데이트 명소다. 등대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가면 묵호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또 묵호등대 주변으로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아 바다 전망을 감상하며 둘러보기 좋다. 추암역과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추암조각공원은 재미있고 다양한 조각품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오면 좋은 곳이다. 북평장은 동해역에서 2km, 동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용차로 6분 거리에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소머리국밥, 감자전 | 오징어, 다시마가공품
즐길거리 북평장터마당, 동해무릉제
주변 관광지 망상해변, 묵호등대, 추암조각공원
찾아가는 길 북평동 주민센터에서 도보 3분

새벽장의 여운이 남아 있는 곳 청주육거리시장

고소한 냄새에 발길이 절로 '전골목·떡골목'

청주의 대표 장터인 청주육거리종합시장(이하 육거리시장)은 1230여 개의 점포를 갖춘 대규모 시장으로 하루 1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 6개로 갈라지는 교차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인 육거리시장은 청주 여행 10선에 포함될 정도로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기로 유명하다.

멋스러운 기와지붕이 눈길을 끄는 시장 입구로 들어서면 각종 과일, 채소,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상점들 사이로 가격을 흥정하고, 한 개라도 더 내주려는 상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여느 전통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이다.

육거리시장 중앙 통로에는 신선한 채소류와 생선류를 파는 노점들이 늘어서 있고, 양편으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앗간, 맛깔스러운 밀반찬들이 입맛을 자극하는 반찬가게도 보인다.

육거리시장은 전골목과 떡골목이 유명한데, 떡자거리로 가면 좁은 골목을 따라 전집과 떡집들이 나온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는 행인들의 발길을 붙든다. 노릇노릇 잘 구워진 전은 한 쪽에 3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양도 제법 넉넉하다. 전집들을 지나면 떡집들을 만날 수 있다. 진열대에는 통통한 바람떡부터 먹음직스러운 절편과 인절미, 콩떡 등 다양한 종류의 떡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전집과 떡집이 늘어난 이 골목은 폐백, 이바지 음식으로 유명한 점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육거리시장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오늘날에도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새벽시장은 육거리시장에서 꽃다리까지 새벽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열린다. 이들의 물건을 주로 사는 사람들은 육거리시장 내에 있는 도깨비농산물시장의 상인들이며 이들 가운데에는 새벽시장을 겸하는 사람들도 있다. 새벽장의 장점은 물건이 싱싱하고 저렴하다는 점인데 부지런해야 좋은 물건도 구매할 수 있는 법. 일찍 서두를 용기가 있다면 새벽장을 둘러보자. 처음 맛보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청주비엔날레·청남대 등 구석구석 볼거리

육거리시장에는 거리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하는 '글로벌 페스티벌'이 열리며, 시장 주변으로는 국제공예 전시를 볼 수 있는 '청주비엔날레'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직지를 알리는 '청주직지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어 시장 투어와 연계해 좀 더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청주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첫손에 꼽히는 청남대는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의미에서 청남대라 불린다. 청남대 곳곳에는 나무와 화초들이 많아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 방문하면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청남대는 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해두는 게 좋다. 또 재미있는 벽화가 그려진 수암골 벽화마을도 여행코스도 그만이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육거리시장은 청주역에서 14km,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승용차로 10~15분 내에 도착 가능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tip



먹거리·특산물 전골목, 떡골목, 수수부꾸미 | 생과자, 구이김
즐길거리 글로벌 페스티벌, 청주국제비엔날레, 청주직지축제
주변 관광지 청남대, 수암골 벽화마을
찾아가는 길 청주역에서 14km,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7km

역전에서 약초 사고 장칼국수 후루룩 제천역전한마음약초시장

“약초시장에 들러 건강 챙겨 가세요”

제천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제천역전한마음약초시장(이하 역전시장)은 제천시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시장이다.

이곳은 약령시장 전체 유통물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한약재 자원 및 재배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약초’가 가장 유명하다.

시장에 들어서면 오가피, 당귀, 황기 등 판매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약초들, 한편에서 약초를 한 움큼씩 묶는 상인, 긴 약초를 일정한 길이로 자르고 있는 상인 등 약초시장의 다양한 풍경이 펼쳐진다. 제천이 약초의 고장이라 불리는 만큼 다양하고 품질 좋은 약초를 구매할 수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약초는 쇼핑 목록 1순위다.

가을에 이곳을 방문하면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약초를 만날 수 있다. 이 시즌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약초들이 모여 서울의 경동시장이나 대구 약령시 등으로 팔려나가기 때문에 가장 물량이 많고 활기를 띤다.

역전시장 하면 웬지 약초만을 판매할 것 같지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특색 있는 먹거리도 풍부하다. 시장을 돌다 보면 곳곳에서 칼국수 점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역전시장의 명물 중 하나가 바로 장칼국수다. 옛 시절 보부상들의 애환이 서린 이 국수는 고추장과 된장을 풀어 국물을 낸 얼큰한 맛이 특징이다.

또 약초시장답게 약초를 이용해 만든 약초찜빵과 한우불고기가 있다. 약초찜빵은 황기와 팥잎, 호박가루 등으로 반죽해 영양식으로 좋으며, 황기와 당귀 등 약초를 먹인 한우로 만든 불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문화 강좌·체험 행사로 외부 관광객 견인

역전시장은 ‘건강과 활력을 찾아주는 힐링시장’이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리브 인 시장’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살롱’을 개설해 강좌와 각종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시장 밖에는 어떤 즐길거리가 있을까. 역전시장 인근에는 제천 10경 중 하나인 의림지가 있다. 역전시장에서 약 7km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저수지로 200~300년 된 소나무와 영호정, 경호루 등의 정자가 어우러진 비경을 감상하기 좋다.

또 역전시장에서 승용차로 20여 분 달리면 배론성지가 나온다.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과 조정시설이 아름다운 이곳은 조용히 산책하기 좋다. 이와 함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풍문화재단지도 둘러봐야 하는 여행 코스 중 하나다.

팔도장터관광열차 투어를 이용해 제천을 방문한다면 좀 더 쉽게 시장과 연계한 관광이 가능하다. 제천역 인근 전통시장도 둘러보고 다양한 체험행사 및 관광여행까지 즐기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역전시장은 제천역에서 350m, 제천시외버스터미널 기준으로는 약 1.6km 거리로 역과 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어 걸어가기 충분하다.

tip



먹거리·특산물 약초찜빵, 한우불고기
즐길거리 '육거리를 부탁해' 오리대회, '리브 인 시장'
주변 관광지 의림지, 배론성지
찾아가는 길 제천역에서 350m 거리 도보로 이동

사이좋게 연결된 한 지붕 두 가족 충주자유무학시장

대장간 소리가 남아 있는 예스러운 곳

시내 중심에 위치한 충주자유무학시장은 충주천을 사이에 두고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이 연결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하나의 시장처럼 운영되고 있다. 두 시장이 모여 있다 보니 농수산물부터, 건어물, 의류, 포목까지 없는 게 없다.

매월 0·5일로 끝나는 날에는 5일장도 열린다. 충주천 따라 길게 늘어선 장터에는 갓 따온 싱싱한 과일과 채소, 연탄불에 직접 구워 판매하는 김, 장날에만 먹을 수 있는 전통과자 등을 파는 350여 개의 난전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충주자유무학시장은 일반적인 시장 풍경 이외에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칼, 호미, 도끼 등을 손으로 만드는 대장장이가 있다는 사실. 야외주차장 옆 무학시장 입구 누리장터에는 무형문화재 장인이 운영하는 ‘삼화대장간’이 있다. 60년의 세월을 간직한 이곳에서는 직접 제작한 화로에서 쇠를 담금질하는 과정과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사라진 옛 풍경이 남아 있는 터라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겠지만 그만큼 재미난 광경을 선물받게 될 것이다.

시장이 커서 골목마다 먹거리가 넘쳐나지만 이곳은 특히 순대와 만두가 유명하다. 시장 중간쯤 지나다 보면 아케이드 밑으로 ‘옛날 원조 순대·만두골목’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이는데 이 골목 어귀에 다다르면 고소하면서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푹푹 끓인 육수에 시래기를 넣어 먹는 담백한 순댓국, 감자가루로 피를 만들어 반투명하고 쫄득한 식감이 특징인 감자만두와 매콤한 김치만두는 꼭 맛보길 추천한다.

어느 시장에나 있는 평범한 메뉴처럼 보이지만 방송에 나오고 유명해진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매장수가 많지 않은 노점 같은 분위기에서 먹는 시장 음식은 우리에게 색다른 재미를 준다.

시장을 떠나기 전 이곳만의 특산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제철 과일을 추천한다. 충주 사과와 복숭아는 아삭하고 진한 단맛이 일품이다.

탄금대·중앙탑공원 등 주변 관광지 가볼 만

충주자유무학시장에서 가볼 만한 관광지로는 멋스러운 산책로가 인상적인 탄금대공원과 중앙탑공원, 아름드리 플라타너스와 수석공원이 있는 세계무술박물관 등이 있다. 시장에서 3.5km 거리에 있는 탄금대와 시장에서 승용차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중앙탑공원은 시원하게 펼쳐진 남한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많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승용차로 20분이면 수안보 온천을 즐길 수 있다. 수안보 온천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 온천으로 대중 온천 이외에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식 온천과 가족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주자유무학시장은 서울에서 버스로 이동 시 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해 충주공용버스터미널에 하차한 후, 143번 시내 버스로 갈아타고 자유시장 정류장에 내리면 된다. 정류장에서 누리장터 주차장까지는 도보로 5분이다. 서울에서 기차로 이동할 경우, 영등포역에서 출발해 충주역에 내린 뒤 143번이나 172번 버스 탑승 후 네오메디클리닉에서 내리면 된다.

tip



먹거리·특산물 순대, 순댓국, 감자만두 | 사과, 밤, 복숭아
즐길거리 삼화대장간, 도우미 '삼들이' 캐릭터
주변 관광지 탄금대, 중앙탑공원, 수안보
찾아가는 길 충주터미널에서 시내버스 143번 승차, 자유시장 하차

서산동부시장

“계곡지·박속밀국낙지탕 드시러 오세요”

서산 상권의 중심이자 전국 100대 상권으로 꼽히는 서산동부시장(이하 동부시장)은 서해안 최대 규모의 수산물 전문시장을 갖추고 있다.

서산은 주변에 관광지가 많고 피서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해산물이 유명하고, 그 때문에 동부시장 또한 어시장이 가장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수산물 이외에도 각종 채소와 포목, 철물기계 및 다양한 업종을 취급하고 있다. 편리한 교통이 장점인 동부시장은 서산공용터미널과 연결돼 있어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이용하기 좋다.

수산물 전문시장답게 시장 입구부터 생선가게가 시작된다. 스티로폼 박스 위에 얼음과 함께 올려진 다양한 종류의 생선과 꽃게, 고추잡치밖에 담겨 있는 조개와 낙지 등 길목마다 수산물이 가득하다.

이곳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 동부시장의 먹거리로는 계곡지와 박속밀국낙지탕, 어리굴젓 등이 있다. 서산 토속 음식인 계곡지는 절인 배추와 무를 넣고 젓갈 국물을 넣어 만든 음식으로 민물새우와 돌게 등이 들어가 구수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이다. 또한 박속밀국낙지탕은 박속을 넣은 육수에 서산 갯벌에서 잡은 낙지, 밀과 보리를 갈아 만든 칼국수를 넣고 끓이는 게 특징으로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을 맛보고 싶다면 추천한다.

이와 함께 동부시장 중앙통로 팔각정에서 먹거리센터 쪽으로 가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호떡, 김밥, 순대 등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해 시장 투어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좋다.

서울에서 보기 힘든 우럭포와 감태, 홍마늘 등이 이곳의 특산품이니 서산 명물을 선물하고 싶다면 쇼핑 목록 우선 순위에 올려두자.

야시장·장터문화축제 등 즐길거리 다양

동부시장에서는 먹거리와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의 4거리 ‘장터문화축제’와 ‘어와둥둥 먹거리 야시장’이 열린다. 시장 방문 전에 축제기간을 미리 알아두면 마당극, 음악단

공연, 시민 노래자랑, 먹거리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을 볼 수 있다.

동부시장과 연계해 둘러볼 만한 관광지로는 해미읍성, 서산호수공원, UFO전망대 등이 있다. 시장에서 약 12km 거리에 있는 해미읍성은 유적과 문화 체험거리가 가득해 아이들과 함께 역사 체험을 하기 좋은 명소다. 가을에는 성곽과 광장에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 꽃구경하기에도 좋다. 산책하기 좋은 가을날 걷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시장에서 1km 남짓한 호수공원까지 걸으며 가을을 만끽해보자. 커피 한 잔 들고 주변을 둘러보며 구경하기 좋은 코스다.

이와 함께 부춘산 정상에 5층 계단으로 구성된 부춘산 전망대는 서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비행접시 형태를 띠고 있어 ‘UFO전망대’라고도 불린다.

동부시장은 서산버스터미널에서 도보 15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시외버스는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12분 간격으로 있으며, 열차 이용 시 홍성역에서 하차한 후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tip



먹거리·특산물 계곡지, 박속밀국낙지탕 | 우럭포, 홍마늘
즐길거리 장터문화축제, 먹거리 야시장
주변 관광지 해미읍성, 서산호수공원
찾아가는 길 서산버스터미널에서 도보 15분

공주산성시장

밤막걸리·잡채만두 놓칠 수 없는 별미

공주시 산성동에 위치한 공주산성시장(이하 산성시장)은 1000여 개의 점포가 있는 대형시장이다. 이곳은 매월 끝자리 1일과 6일에 5일장이 함께 열리는데, 장날이면 지역 주민과 전국에서 모여드는 장돌뱅이들로 북적인다.

산성시장은 크게 5구획으로 나뉘어 있는데 구획은 각각 산성시장1길, 2길 등으로 부른다. 시장 구경이 처음이라 필요한 품목을 찾기 힘들다면, 길목에 있는 상인들에게 묻거나 시장 초입에 있는 시장 안내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서울에서 장시간 달려 시장에 도착했으니 먹방 투어부터 떠나볼까. 공주 먹거리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밤’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산성시장에는 밤으로 만든 커스타드, 인절미를 변형시켜 만든 쫄깃한 식감의 올방떡, 밤막걸리 등 다양한 특산품이 있다. 이 중 밤막걸리는 공주산 밤에 술잎과 치자 등을 넣고 만든 것이 특징이며, 밤의 고소한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다. 이와 함께 꼭 먹어봐야 하는 분식이 있었으니, 바로 초장에 찍어먹는 잡채만두다. 당면과 살코기를 넣어 만든 잡채만두는 한 번 찌낸 다음 기름에 튀겨내는데, 바삭한 식감과 비법 초장 맛이 일품이다. 주말에는 잡채만두를 맛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하니 기다리는 수고로움이 싫다면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다.

산성시장에는 고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있다. 1000여 종의 다양한 식품이 있는 식물원과 책을 읽으며 커피 한 잔 즐길 수 있는 북카페가 그곳이다. 미니식물원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열대식물과 각종 화초 등이 있어 상인과 고객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제격이다. 미니식물원 2층에 마련된 북카페는 시원한 음료와 커피는 물론 2000여 권의 다양한 도서와 키즈놀이방을 갖추고 있다.

시장 근처에는 공주산성시장문화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공주는 매년 정안밤꽃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축제 때에는 밤국수와 밤과전, 밤묵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이색요리를 맛볼 수 있다.

시장 투어와 함께 가족 나들이 하기 좋은 곳

공주는 역사와 관련된 관광지가 많다. 산성시장 주변으로 무령왕릉, 공산성, 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가족들과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공주는 크거나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산성시장에서 무령왕릉까지 1.2km, 이어 공산성과 한옥마을까지 1~2km를 쉬엄쉬엄 걸어서 구경할 수 있으니 날씨가 좋은 날 방문한다면 맑은 공기를 맞으며 도보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다.

산성시장은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승용차로 7분 거리에 있다. 시내버스 이용 시 공주터미널에서 100, 101, 125번을 타고 산성시장 정류장에 하차하면 된다. 소요시간은 약 25분이다.

또 인절미축제 때에는 풍물길놀이, 퓨전국악 등 공연이 열리며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떡매치기’를 볼 수 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 길게 줄지어 놓은 테이블에서 상인과 시민들이 하나 되어 떡을 만드는 진풍경이 연출되는데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tip



먹거리·특산물 잡채만두, 올방떡 | 공주밤, 밤막걸리
즐길거리 미니식물원, 북카페
주변 관광지 무령왕릉, 한옥마을, 공산성
찾아가는 길 공주버스터미널에서 승용차로 7분

맛 고장으로 떠나는 여행 전주남부시장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청년몰'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남부시장(이하 남부시장)은 8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선 대규모 시장으로 전주의 3대 시장으로 꼽힌다. 이곳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전주의 대표 상권으로 청년몰과 야시장 등 특색 있는 볼거리가 넘친다.

남부시장 하면 '청년상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빈 점포가 즐비했던 남부시장 2층에 청년장사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고, 젊은 상인들의 열정 가득한 곳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들에게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시장 입구부터 1층 시장 내부는 여느 전통시장과 다를 바 없는 일반적인 풍경이다. 1층에는 주단과 가구부터 채소, 과일, 건어물, 약재와 잡화까지 다양한 품목의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귀여운 풀벌 조명에 따라 시장 2층으로 올라가면 청년몰이 시작된다. 2011년부터 REAL과 새마을을 합성해 '레알뉴타운'이 들어섰는데 이것이 바로 남부시장 청년몰이다.

청년몰 초입에 손글씨와 그림으로 아기자기하게 점포 위치를 설명해놓은 '웰컴투 청년몰'이라는 안내도가 눈에 띈다. 젊은 상인들답게 감각적인 문구와 센스 있는 디자인으로 시장을 꾸며놓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카페와 분식집, 세계맥주펍, 공예점 등 예쁜 점포들이 있으니 시장 투어와 연계한 데이트 코스로 그만이다. 월요일에는 정기휴일로 영업을 하지 않으니 방문 전 일정 확인을 해두는 게 좋다.

이와 함께 남부시장에는 '도깨비시장'이라는 새벽장이 열리는데, 남부시장 인근 전주천변 매곡교에 상인들이 모여 대략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좌판을 벌인다. 새벽을 여는 시장의 아침이 궁금하다면 한 번쯤 가볼 만하다.

식도락 여행 최고의 코스 '야시장'

다른 시장도 아닌 남부시장에 왔다면 야시장은 꼭 둘러봐야 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열

리는 야시장은 다른 시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먹거리 종류가 많다. 컵에 담겨 나오는 스테이크, 삼겹살을 듬뿍 넣은 김밥, 꼬지에 낙지를 돌돌 말아 먹는 낙지호롱 등 이색 먹거리가 넘쳐난다.

특히 이곳의 명물인 '총각네스시'의 소고기불초밥을 비롯해 베트남음식, 물방울떡, 닭날개볶음밥 등은 군침을 돌게 한다. 야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지나는 길이 좁고, 줄서서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다소 있다. 하지만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한옥마을 투어-남부시장 구경-야시장 체험을 연계해 다채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 작은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 특히 한옥마을에서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전통한복을 입고 마을 곳곳을 둘러보는 재미있는 체험도 해볼 수 있어 좋다.

남부시장은 KTX 전주역에서 119, 535, 551번 버스로 환승해 남부시장 정류장 혹은 팔달로 예술회관 정류장에 내리면 된다. 남부시장에서 전주역까지 5km, 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4km 정도로 비교적 가까이 위치해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순대골목, 야시장 먹거리 | 삼색두부, 신기통보
즐길거리 청년몰, 주말 야시장, 전주국제영화제
주변 관광지 전주한옥마을, 풍남문, 전동성당
찾아가는 길 KTX 전주역에서 시내버스 119, 535번 이용

추어탕 한 그릇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 남원공설시장

"남원 왔으면 추어탕·순대국밥은 꼭 먹어봐야죠"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남원공설시장(이하 남원시장)은 인근 지역 사람들이 모여드는 남원의 대표시장으로, 매월 4일과 9일로 끝나는 날에는 5일장이 함께 열린다. 이곳은 총 8개 동에 370여 개의 점포가 있다. 채소류와 생선, 육류, 건어물, 한복, 산나물 약초 등 다양한 품목이 여기저기 눈길을 끄는데 역시나 먹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남원에 왔으니 추어탕 한 그릇은 기본이다. 추어탕은 주재료인 미꾸라지에 시래기와 토란대를 넣고 끓인 탕으로 서민들이 주로 먹던 음식이다. 남원시장 근처 광한루원 일대에 가면 추어탕거리가 형성돼 있는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추어탕과 더불어 순대국밥도 유명한데, 남원시장 안 순대골목에 있는 '송동순대'는 이곳 사람들이 인정한 대표 맛집이다. 시장에서 맛보는 시원하고 담백한 국밥 한 그릇은 외국인 관광객같이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에게도 맛있는 식사 한 끼가 될 것이다.

서울에서 3시간 넘게 달려왔다면, 힘들게 온 만큼 남원의 특별함을 담아가보자. 남원시장의 특산품으로는 목공예품과 식도 등이 있다. 남원의 목공예품이 유명한 것은 장인의 정성스러운 세공을 거치기 때문인데,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아 3대가 쓸 수 있다는 말이 전해질 만큼 튼튼하기로 소문나 있다. 또한 남원의 칼은 세계 유명브랜드의 칼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품질을 자랑한다.

입체영화제·춘향테마파크 등 볼거리 다양

남원시장에는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으로 주말극장을 꾸미는 '4D 입체영화제'를 비롯해 먹거리장터와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전통시장이 그저 장을 보러 오는 곳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즐기는 문화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장날에는 시장 입구 홍보관에서 남원의 전통공예와 음식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며, 판소리와 난타 등 흥겨운 공연으로 시장 분위기를 떠들썩하게 한다.

남원시장 주변으로는 갈 만한 관광지가 어디 있을까. 시

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춘향테마파크'가 있는데 테마파크 안에는 향토박물관, 항공우추천문대, 도예전시관 등 볼거리가 다양해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기 좋다. 또 시장에서 약 900m 떨어진 곳에는 소설 '춘향전'의 무대인 '광한루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명승지로 봄이나 가을에 가면 더욱 돋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며 느긋하게 산책하며 풍경을 둘러보기 좋다. 광한루원은 최근 인기 상영 중인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밖에 남원은 드라마 '쾌걸춘향'과 영화 '춘향뎐'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위의 두 곳 모두 남원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시장 투어와 연계해 가족 나들이나 데이트를 즐기기에 좋다.

남원시장은 KTX 남원역에서 161, 133번 버스로 환승하고 공설시장 정류장에 내리면 된다. 버스정류장에서 시장까지는 도보로 200m 거리다. 남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장까지는 약 3km이며,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추어탕, 순대국밥 | 지리산 약초, 남원목기, 남원식도
즐길거리 주말극장, 야시장
주변 관광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지리산국립공원
찾아가는 길 KTX 남원역에서 시내버스 161, 133 이용

오랜 역사의 흔적이 새겨진 정읍샘고을시장

백제시대 시작된 1000살 시장

‘대한민국 단풍 1번지’로 인정받는 전라북도 정읍시의 최대·최고(最古) 전통시장인 ‘정읍샘고을시장(이하 샘고을시장)’은 무려 1000년 이상의 역사를 품고 있다.

현재 상설시장과 2·7장(매월 2·7·12·17·22·27일 개장)이 함께 운영되는 샘고을시장은 350여 개 점포가 활발히 영업 중에 있으며 농축산물과 수산물, 건어물, 옷, 잡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취급하는 종합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시장 곳곳에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만한 콘텐츠가 가득하다.

샘고을시장에는 전통 수공예 기술로 제작하는 국악기를 비롯해 3, 4대 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3곳의 유기점, 옛 방식으로 만든 웅기 전문점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먹거리 역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반백 년 역사의 순대국밥 전문점 ‘화순옥’부터 달 짝지근한 맛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옛날팔죽집’, 쫄깃한 맛이 일품인 모시송편과 썩개떡 등 다양한 명물 음식들이 식욕을 자극한다.

시장 구석구석 남아 있는 예스러운 풍경도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간다. 수십 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간판이 내걸린 10여 곳의 방앗간을 비롯해 40년 동안 오롯이 쇠를 다뤘은 장인(匠人)이 운영하는 정읍민속대장간, 100년 세월을 이어오고 이는 솜털집(목화솜), 이제는 추억 속 장면이 된 뽕튀기집 등은 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아련한 추억의 단편이다.

샘고을시장은 정읍역(호남선)에서 도보로 15분, 정읍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전국 최고의 단풍 축제, ‘정읍사문화제’

정읍의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은 매년 가을마다 많은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전국 최고의 단풍놀이 명소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풍성한

샘고을시장과 형형색색 아름다운 색동옷을 입은 가을철 내장산을 연계한 관광 상품 및 코스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샘고을시장에 내장산까지의 거리는 약 10km이며, 택시비는 1만 3000원 가량이 소요된다.

내장산 둘레길은 내장산국립공원 매표소에서 내장사 케이블카까지 이어져 있는 50여 분 길이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내장사 케이블카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보행 약자의 경우 이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내장산 단풍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내장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이 있으니,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펼쳐지는 지역 가을축제의 대명사 ‘제26회 정읍사문화제’다. 정읍사문화제는 아름다운 내장산 단풍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지역 최고의 축제로 손꼽힌다. 정읍사문화제는 내장산 문화광장과 샘고을시장을 포함한 시내 일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로 기억될 것이다.

tip



먹거리·특산물 순대국밥, 옛날팔죽, 모시송편
즐길거리 정읍사문화제
주변 관광지 내장산국립공원
찾아가는 길 정읍역과 정읍터미널에서 도보 10~15분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자시고 가이소! 순천아랫장

순천아랫장에서 맛보는 국밥의 진수

호남 최대의 5일장인 순천아랫장은 지난 1977년 남부시장이란 이름으로 개설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7장(매월 2·7·12·17·22·27일 개장)으로 운영되는 순천아랫장은 장날이면 2만여 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룬다.

순천을 방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버스를 이용해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하거나 기차를 타고 순천역에서 하차하는 것이다.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든 두 곳 모두에서 순천아랫장까지 1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 1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

순천아랫장에서는 순천만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청결미를 비롯한 농산물과 남해안에서 공수되는 각종 수산물, 공산품, 약초, 화초 등이 주로 거래된다.

순천아랫장은 국밥골목이 유명하데 이곳의 국밥 전문점들은 최소 수십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점포 앞에 자리잡은 커다란 가마솥에는 뽀얀 육수가 팔팔 끓고 있다. 국밥골목은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이곤 한다. 설렁탕을 떠오르게 할 만큼 진한 육수에 고기와 각종 돼지 부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간 국밥 한 그릇이면 하루 종일 온 몸이 후끈 거린다. 모든 국밥은 일괄 7000원의 가격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 밖에도 술안주로 으뜸인 수육과 순대도 준비돼 있다.

매주 금·토요일에 열리는 순천아랫장 야시장은 순천을 방문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하절기 18~23시, 동절기 17~22시로 운영되는 야시장은 20여 개 점포가 독특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수많은 메뉴 중 첫손에 꼽히는 메뉴는 매콤하게 구워낸 ‘낙지호프’와 큼직한 키조개로 만든 ‘키조개스테이크’다. 이외에도 삼겹살과채말미와 양갈비스테이크, 소고기불초밥 등 젊은 층이 선호할 만한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다.

순천만에 내려앉은 가을의 끝자락

누구나 인정하는 순천 최고의 관광명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순천만’으로 압축된다. 고흥반도와 여수반도 사이에 깊

숙이 들어간 순천만의 최고 비경은 230만㎡(약 70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갈대밭이다. 가을을 대변하는 듯한 갈대의 군락이 펼쳐지는 순천만의 풍광은 어딘가 몽환적인 느낌을 전해준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에 안성맞춤인 자연생태관과 갈대밭을 관통하는 탐방로, 순천만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용산전망대 등 각종 시설이 잘 정비돼 있어 고객 편의성 역시 높은 편이다.

순천아랫장은 물론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순천역 버스정류장에서 67번 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순천만까지 갈 수 있다.

고즈넉한 순천 시내 관광을 즐기고 싶다면 골목골목 트릭아트 벽화가 그려져 있는 남제골벽화마을을 추천한다. 순천제일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남제골벽화마을은 약 500m 길이의 골목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순천종합버스터미널과 순천역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국밥골목, 야시장 먹거리
즐길거리 매주 금·토 열리는 야시장
주변 관광지 순천만, 남제골벽화마을
찾아가는 길 순천터미널과 KTX 순천역에서 도보 5~10분

한우 전국 최저가 실현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장흥삼합, 맛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서울에서 정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이하 장흥시장)'은 전국 으뜸의 한우 고장인 장흥 최고의 전통시장이다. 2·7장(매월 2·7·12·17·22·27일 개장)으로 운영되는 5일장을 기본으로 전국 최초로 매주 토요일마다 추가로 장이 열리는 '토요시장'을 병행하고 있다. 참고로 한우판매장 및 음식점은 매일 영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토요일 개장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민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과 임산물을 판매하는 '어머니 텃밭장터'가 함께 열린다.

매년 60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 최대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장흥시장 20여 곳의 한우판매장과 30여 곳의 한우 전문식당이 밀집해 있어 장날이 아닌 날에도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곤 한다. 장흥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과 500여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다.

장흥시장의 강점은 '고품질 최저가'로 정의된다. 좋은 품질의 한우를 시장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고개들의 입장에서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장흥시장을 이용하는 최적의 방법은 20여 곳의 한우판매장에서 한우를 구입하고 인근 식당을 찾아가 이른바 '상차림비용(2인 기준 7000원)'을 지불한 후 직접 고기를 구워먹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소고기만 탐해서는 아니 된다. 장흥을 방문했다면 응당 '장흥삼합'을 맛보는 것이 인지상정일 터. 시장의 어느 식당이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소고기를 제외한 장흥삼합의 나머지 구성인 키조개와 표고버섯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반찬으로 나오는 갯잎장아찌에 잘 구운 소고기와 키조개, 표고버섯을 싸서 먹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올바른 장흥삼합 먹는 법'이다.

육해공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한데 모여 맛의 하모니를 이루는 장흥삼합을 맛보게 된다면 전국 최고의 소고기를 최저가로 즐길 수 있는 장흥의 매력에 흠뻑 빠질 것이다.

가족 단위 관광객 맞춤 코스

장흥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약 2.5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터미널정류장에서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두 정거장만 이동하면 된다. 도보로는 약 25분 정도가 소요된다.

전남 최초의 천문과학관인 '장흥 정남진 천문과학관'도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관광 명소다.

원형돌 형태의 주관측실과 슬라이딩돌의 보조관측실에는 반사망원경과 굴절망원경 등이 설치돼 있어 주간에는 태양의 표면을, 야간에는 태양계 친구들과 성운, 성단 등의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천체투영실에서는 시뮬레이터로 생동감 있는 별들 사이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수십만 광년 떨어진 곳의 별과 교감할 수 있는 장흥 정남진 천문과학관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천문과학관의 개관시간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공휴일 다음 날이 휴관일이다. 터미널정류장에서 농어촌버스로 우산리정류장까지 이동한 후 약 1.5km 거리는 걸어서 가야 한다.

tip



먹거리·특산물 한우, 장흥소고기삼합 | 키조개, 표고버섯
즐길거리 매주 토요일·장날 열리는 '어머니 텃밭장터'
주변 관광지 장흥 정남진 천문과학관, 장흥다예원
찾아가는 길 장흥터미널에서 도보 5분

맛과 멋이 충만한 풍요의 고장 여수서시장

전통시장에 펼쳐진 남해 바다, '여수서시장'

1930년대 문을 연 여수서시장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전통시장이다. 상설로 운영되는 서시장은 의류를 주로 취급하는 (주)서시장과 수산물 및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서시장주변시장으로 나뉘는데, 지역 주민들은 편의상 '서시장'으로 통일해 부르고 있다.

특히 서시장을 대표하는 '풍물거리'는 싱싱한 활어와 회를 비롯해 해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등 다양한 여수 명물을 만날 수 있다. 풍물거리에서는 최근 제철을 맞이한 서대와 이순신 장군이 즐겨 먹었다는 군평선이(금풍행이)를 비롯해 양태와 조기, 민어, 갑오징어, 갈치, 삼치, 문어, 봉장어, 전어, 소라 등 그야말로 남해수산물의 종합선물세트가 갖춰져 있다.

미식가들 사이에서 여수 별미 중의 별미로 꼽히는 '반건조 수산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서시장의 특화상품이다. 꼬들꼬들한 식감과 잘 숙성된 반건조 수산물 특유의 풍부한 감칠맛이 특징이다. 반건조 수산물은 그대로 썰어 초장에 찍어 먹어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를 이용해 얼큰한 매운탕을 끓여내는 것을 최고의 요리법으로 친다.

이 외에도 여수 대표 특산물인 갯김치 전문점포도 즐비하다. 각자의 손맛에 따라 김치의 맛이 다르기 때문에 구입 전 시식은 필수라는 귀띔이다. 소포장 구입 및 아이스박스 밀봉포장 택배 발송도 가능하다.

서시장은 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으며 터미널정류장에서 88번 버스를 이용해 서시장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KTX를 이용한 경우 여수EXPO역정류장에서 111번 버스에 탑승한 후 서시장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치명적 매력으로 무장한 '여수 밤바다'

여수는 풍부한 먹거리만큼이나 수많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다. 고운 물길을 의미하는 한려수도국립공원이 시작되는 곳으로 여수 바다에는 모두 365개에 이르는 섬들이 떠 있어 흡사 바다에 꽃이 핀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온다.

자연의 은총이 가득한 여수에서도 최고의 관광지로는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여수항이 첫손에 꼽힌다. 세계 3대 미항으로 불리는 나폴리, 시드니, 리우데자네이루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미항(美港)인 여수항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여수 최고의 관광 명소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한 가지, '여수밤바다'란 이름을 가진 정식 관광지는 따로 없다는 사실. 해상케이블카가 있는 돌산공원이나 돌산대교가 내려다보이는 남산공원 등 여수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여수밤바다의 진수는 여수항과 돌산읍 항구를 따라 조성된 '낭만의 거리'로 압축된다. 물론 그 어느 곳에서도 여수밤바다의 특별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터다.

국내 최초의 바다횡단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역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여수 돌산과 자산공원을 잇는 1.5km 구간의 케이블카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오동도를 중심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여수꿀빵, 해물삼합 | 반건조 수산물, 여수갯김치
즐길거리 여수불꽃축제, 빛노리아축제
주변 관광지 돌산공원, 벽화골목, 해상케이블카
찾아가는 길 KTX 여수역에서 시내버스 111번 환승, 서시장 하차

600년 역사의 안동찜닭과 함께하는 미각여행

안동구시장

40개 찜닭 전문점이 한 공간에, 안동구시장 찜닭골목

안동 지역 최초의 전통시장인 '안동구시장'은 350여 개의 점포에서 800명 이상의 상인이 영업 중인 지역 상거래 중심지로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안동역에서 불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안동구시장은 기차여행객의 증가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했다.

안동구시장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 40여 개의 찜닭 전문점이 모인 '찜닭골목'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문헌상 확인할 수 있는 역사만 600년 이상인 안동찜닭은 안동구시장 찜닭골목에서 비로소 그 꽃을 피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동구시장 찜닭골목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동구시장 서문 방향에 닭을 튀겨 판매하는 점포가 들어서며 일명 '닭튀김골목'이 형성됐는데, 이후 시대적 흐름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던 닭튀김골목 상인들이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안동찜닭이었던 것이다. 이후 지자체와 안동구시장은 힘을 합쳐 찜닭골목을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왔으며, 현재는 시장의 명물로 자리매김한 찜닭골목에 힘입어 주말이면 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찜닭골목의 가장 큰 특징은 주문과 동시에 가게 앞에 마련된 주방에서 조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개방형 주방'을 도입한 셈이다. 고객들이 자신들의 요리가 직접 만들어지는 장면을 통해 음식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상인들의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전국 3대 빵집'으로 알려진 '맘모스제과' 역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손꼽힌다. 안동구시장 정문쪽에 위치한 맘모스제과를 대표하는 메뉴는 '크립치즈빵'으로 너무 많은 손님이 몰리는 탓에 이른 오전부터 품절되기 일쑤라고 하니 빠른 방문은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안동구시장에서는 지역 대표 특산품인 안동간고등어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짭짤한 소금간을 한 간 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워내면 가을철 최고의 밥상으로 손색

이 없을 터다. 올가을, 맛으로 가득한 안동구시장으로의 기차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에서의 시간여행

안동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하회마을이 첫 손에 꼽힌다. 하회마을의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조선시대 선비가 나를 반길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와집과 초가집이 오랜 세월을 넘어 현재에 나타난 까닭이다. 집집마다 스며 있는 예스러운 향기는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함께 선조들의 생활상을 함께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안동역에서 150m 떨어진 교보생명정류장에서 46번 버스를 타고 탈놀이전수관앞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약 1시간 20분 소요.

도산서원 역시 안동의 고고한 이미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잘 닦인 산책로를 따라 10여 분 정도 걸음을 옮기면 고풍스러운 한옥이 나타난다.

tip



먹거리·특산물 안동찜닭, 크림치즈빵 | 안동간고등어, 안동소주
즐길거리 풍류살롱의 예술공연, 풍류예술난장
주변 관광지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찾아가는 길 안동역에서 도보 5분

청정 동해 내음 가득한

포항죽도시장

동해 최대 규모 전통시장, 먹거리·살거리 '풍성'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고장, 포항시의 '죽도시장'은 14만8000㎡(약 4만5000평)의 부지에 1500여 개 점포가 모여 있는 동해안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다.

죽도시장과 중앙상가는 형산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영일만 주변인 포항의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1.2km,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KTX포항역에서는 역 앞 정류장에서 107, 175, 500번 버스를 이용해 중앙상가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죽도시장은 동해안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 힘입어 어시장이 특히 발달해 있다. 많은 관광객들 역시 죽도시장하면 자연스럽게 어시장을 떠올릴 정도다. 새벽 4, 5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죽도어시장은 횃집만 무려 200개에 이르는 명실공히 수산물 천국으로 평가받는다.

조금 이르지만 가을의 끝자락에 놓인 요즘 미식가들의 발길이 포항으로 향하는 이유는 바로 포항의 대표 특산품인 '과메기'에 있다. 포항까지 와서 과메기를 맛보지 않는다면 섭섭하다. 시장 곳곳에서 과메기를 팔리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첫손에 꼽는 겨울철 별미이기 때문이다. 과거 주재료였던 청어의 어획량이 줄면서 지금은 콩치로 대체됐는데 냉동보관된 콩치를 바람에 사흘 정도 말리면 꼬들꼬들한 식감의 과메기가 탄생한다.

포항 지역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대소사에 빠지지 않고 상에 올린다는 '개복치' 역시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고추장 혹은 된장으로 맛을 낸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에 두툼하게 썬 생선살과 푸성귀를 넣은 물회는 시장 상인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이다.

또 동해와 인접해 다른 곳보다 싸늘한 포항의 추위를 달래는 데는 뜨끈한 곰탕 한 그릇이 제격이다. '백중원의 3대 천왕'을 통해 포항의 또 다른 명물이 있음을 증명한 '평남식당'의 진한 곰탕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뽀얀 국물에 쫄득한 고기가 한가득 들어간 평남식당의 곰탕은 1만 원의 가격

이 책정돼 있으며 방송 이후 워낙 많은 손님들이 몰리기 때문에 빠른 방문이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죽도시장은 수산물과 함께 이를 이용해 만든 건어물도 유명하다. 포항 앞바다에서 잡은 각종 생선과 해산물을 해풍에 잘 말려 만들어내는 건어물로 구성된 선물세트는 주부들에게 특히 고마운 선물이다.

대한민국 가장 빠른 일출을 만나다

울산 간절곶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일출을 만날 수 있는 호미곶은 포항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출 명소로 유명하다. 요즘에는 보통 새벽 6시를 전후해 일출이 시작되니 자칫 해돋이를 놓치지 않도록 부지런한 발걸음은 필수다. 호미곶을 상징하는 동해 한가운데 우뚝 솟은 '상생의 손'을 배경으로 일출사진을 찍는다면 평생을 간직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호미곶 주변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불을 밝힌 호미곶등대를 비롯해 국립등대박물관, 호미곶해맞이공원 등이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개복치, 포항물회 | 구룡포과메기, 돌문어
즐길거리 포항 국제불빛축제
주변 관광지 호미곶, 내연산, 오어사
찾아가는 길 KTX 포항역에서 시내버스 500, 107번 환승

경주중앙시장

경주의 맛이 한데 모인 '경주중앙시장'

천년고도 경주시에서 100년 이상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경주중앙시장은 700여 개 점포, 2000여 명의 상인들이 활발히 영업 중인 지역 최대 전통시장이다.

최근에는 시장의 오랜 역사를 관통하는 맛집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먼저 경주 대표 특산품인 황남빵의 원조를 만나볼 수 있다. 달콤한 소를 넣어 오븐에 구워내는 황남빵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특산품이다.

경주중앙시장 하면 떠오르는 것은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받아주는 '김밥'이다. 최근 유행하는 소위 '프리미엄 김밥'처럼 내용물이 화려하지 않지만, 매일 새벽마다 직접 모은 재료를 준비해 만드는 경주중앙시장 김밥은 어린 시절 소풍에서 먹는 '엄마표 김밥'을 떠오르게 한다.

갓 튀긴 통닭에 마늘을 듬뿍 올리는 '마늘치킨' 역시 경주중앙시장의 명물로 유명하다. 시장 내 닭골목에 위치한 통닭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늘치킨은 식어도 맛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포장 구입 후 경주의 관광명소를 배경 삼아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올해 4월 개장한 '경주중앙시장 야시장'은 경주의 밤을 책임지고 있는 '야식 특화골목'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오리훈제구이부터 떡볶이, 납작만두, 불닭발, 어묵, 막창, 케밥, 스테이크, 고갈비, 닭꼬치, 빈대떡, 초밥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다.

경주중앙시장은 경주역과 경주시외버스터미널, 경주고속버스터미널 등 세 곳의 대중교통 정차지 모두에서 1k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 5~10분 정도면 충분하다.

튼튼한 두 다리만으로도 충분한 경주여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경주여행을 경험해봤을 정도로 경주는 그 어느 고장보다 풍부한 관광 명소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내에서 약 20km 떨어진 불국사, 석굴암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관광지가 반경 3, 4km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 혹은 자전거로도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주중앙시장과 가장 가까운 관광지는 대릉원과 첨성대다. 시장에서 식사를 마친 후 500m 거리의 대릉원과 바로 옆에 솟은 첨성대를 들르는 코스를 추천한다.

첨성대를 시작으로 경주석빙고와 교촌한옥마을, 국립경주박물관(무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역사유적월성지구 등 다수의 관광지가 쭉 연계돼 있다.

첨성대에서 도로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경주동궁과 월지(옛 안압지)'에서는 환상적일 만큼 아름다운 경주 최고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중앙시장 인근의 '대구은행건너편 정류장'에서 10, 11, 700번 버스를 이용하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찾아갈 수 있다. 불국사까지 약 1시간, 석굴암까지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

tip



먹거리·특산품 우영김밥, 소머리국밥 | 황남빵, 문어
즐길거리 청년물 '다온나' 마켓, 야시장
주변 관광지 불국사, 첨성대, 안압지
찾아가는 길 경주역과 경주터미널에서 도보 5~10분

삼천포용궁수산물시장

갓 잡아 올린 남해 수산물로 끓여낸 해물칼국수

60여 년 역사의 삼천포용궁수산물시장은 지난 2013년 대대적인 시장 재건축을 거쳐 남해 대표 수산물특화시장으로 거듭난 사천 지역 최고의 관광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

약 270여 개 점포가 영업 중인 삼천포용궁수산물시장은 새벽 3, 4시부터 문을 연다. 밤새워 조업을 한 어선들이 시장 뒤편과 맞닿아 있는 삼천포항에서 수산물을 출하하는 시간과 맞춘 까닭이다. 참고로 삼천포용궁수산물시장의 삼천포항은 '삼천포신항'과는 전혀 다른 항구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삼천포구항' 혹은 '옛 삼천포항'으로 불리니 정확한 명칭을 기억해야 한다.

삼천포용궁수산물시장의 대표 상품으로는 역시 한려해상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 올린 수산물이 손꼽힌다. 특히 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 조금 부지런을 떤다면 어선에서 직접 공수되는 신선한 수산물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에는 꽃게, 가리비, 백합, 새우 등의 해산물과 각종 채소를 넣고 끓인 해물탕이 단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다. 그저 흔하디흔한 해물탕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잠시 보류하자. 삼천포용궁수산물시장 해물탕의 방점을 찍는 것은 탕이 보글보글 끓은 후 마지막에 얹어지는 큼직한 돌문어다. 수심 10m 이상의 바위틈에서 자라는 돌문어는 육질이 쫄깃하면서 담백한 것이 특징으로 해물탕의 맛을 더욱 깊게 해준다.

참바지락으로 맛을 낸 '해물칼국수'도 지나치면 섭섭한 메뉴다. 시장 상인들의 단골 식사 메뉴인 해물칼국수는 제철 바지락으로 우려낸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스스로를 애주가라 자부한다면 즉석에서 떠주는 생선회를 선택하자. 시장 2층에 마련된 '초장집'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밑반찬과 각종 양념, 식사, 주류 및 음료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삼천포용궁수산물시장은 삼천포시의외버스터미널에서 약 1.7km, 도보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천공항 이용 시 75번 버스를 타고 서부시장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삼천포여행

삼천포는 고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덕분에 지역 내 관광 명소들 간 인접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먼저 삼천포여행 하면 빠질 수 없는 삼천포대교는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드라이브 코스로도 사랑받고 있다.

삼천포를 넘어 사천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남일대해수욕장에서는 거대한 코끼리가 물을 먹고 있는 듯한 형상의 '코끼리바위'를 만날 수 있다. 코끼리바위를 지나 바다를 따라 잘 다듬어진 남일대산책로를 통해 진닐유원지로 향하다 보면 삼천포대교와 삼천포항을 아우르는 환상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삼천포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삼천포용궁수산물시장과 삼천포대교 중간쯤에 위치한 동서공원에서는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진 바다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풍차언덕'으로도 불리는 동서공원의 대표 상징은 빨간색 지붕이 올라간 풍차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진을 찍는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tip



먹거리·특산품 물회, 해물탕 | 바다커피, 죽방멸치
즐길거리 시장 내 용궁을 테마로 한 테마존
주변 관광지 삼천포대교, 풍차언덕
찾아가는 길 삼천포버스터미널에서 1.7km, 도보 20분

입과 눈이 호강... 하루로는 부족하다

남해전통시장

전국 최고의 일출 명소 '보리암'에서 시작되는 남해여행

대한민국 지도를 펼친 후 서울에서 남해군까지의 아찔할 정도로 먼 거리를 확인하면 쉬이 남해여행을 결심하지는 못할 것이다.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남해의 특성상 어떤 고장에서도 꽤 오랜 시간 이동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거리상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해여행을 결심했다면 늦은 밤에 출발하는 '무박 2일' 혹은 '1박 2일' 여행을 계획해볼 것을 추천한다.

강화도 보문사, 낙산사 흥련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관음 기도처로 불리는 금산 보리암의 일출을 보지 못한다면 남해여행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 기준 남해까지 5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새벽 5시를 전후해 시작되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약 1시간의 등산 시간을 포함해 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임을 감안해 자가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3년간 공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보리암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기암괴석으로 이뤄져 그 장엄함을 뽐내는 금산 정상에 올라야 한다. 금산은 해발 700m가 조금 못 되는 산으로 산세가 험하지 않아 등산 초보자라도 그리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다. '금산 38'경이라 부를 만큼 산 곳곳에 자리 잡은 수려한 풍광을 감상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또한 인기 드라마 '환상의 커플'를 통해 알려진 '독일마을'의 이국적인 풍경은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준다.

이 밖에도 남해를 육지와 연결하는 남해대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봄이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하며 다른 계절에도 특히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남해산 수산물로 차려낸 한상차림에 '입이 떡'

새벽부터 시작하는 남해여행에 딱 맞는 곳은 역시 이른 새벽부터 문을 여는 '남해전통시장'을 꼽을 수 있다. 120여 년

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남해전통시장은 상설시장과 2·7장(매월 2·7·12·17·22·27일 개장)이 병행되는 지역 최대 시장이다. 1년 열두 달 싱싱한 남해산 채질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반드시 들르는 '참새방앗간'으로 유명하다. 무엇보다 남해시의 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다.

남해전통시장에서 꼭 맛봐야 할 향토음식은 '멸치쌈밥'과 '성계비빔밥'이다. 남해를 대표하는 명물 음식인 독특한 풍미의 멸치쌈밥을 한입 가득 욱여넣으면 입안 가득 바다 향기가 차오르고, 감칠맛이 일품인 성계를 듬뿍 넣어 비벼내는 성계비빔밥 역시 놓칠 수 없는 별미 중 하나다.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남해산 죽방멸치는 소중한 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죽방멸치는 다른 멸치와는 다른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일반 멸치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품질이 우수하다.

tip



먹거리·특산물 멸치쌈밥, 성계비빔밥 | 죽방멸치, 말린생선
즐길거리 친환경 농산물 가득한 5일장
주변 관광지 남해대교, 보리암, 다랭이마을
찾아가는 길 남해버스터미널에서 도보 5분

남해 수산물의 진수를 만나다

통영중앙시장

통영중앙시장 '제대로' 이용하기

수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통영시의 최대 전통시장, 통영중앙시장은 청정 남해 수산물의 천국이다.

점포의 절반 이상이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통영중앙시장은 시장 곳곳에서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들이 펼쳐지며 손님을 유혹한다.

무엇보다 통영중앙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남해산 생선회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통영중앙시장의 모든 수산물점포는 손님이 원하면 즉석에서 회를 떠준다. 수십 년 경력의 상인들의 솜씨는 '달인'이라 칭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에게는 그 모습 자체가 색다른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즉석에서 뜯 생선회를 받아들었다면 당신은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된다. 하나는 따로 초장을 준비한 후 수려한 남해 풍광을 바라보며 야외에서 음식을 즐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 내에 마련된 일명 '초장집'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 사람당 3000~4000원 정도의 '상차림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초장집은 간단한 채소와 밑반찬이 제공된다. 또한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회를 뜨고 남은 뼈로 매운탕을 끓여주거나 회비빔밥, 주류 및 음료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정문 입구를 기준으로 도로변으로 줄지어 늘어선 '통영꿀빵' 역시 통영중앙시장의 대표 명물로 유명하다. 달콤한 팔로 속을 채우고 바삭하게 구운 빵 표면에 꿀을 발라 마무리한 통영꿀빵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호불호 없는 인기를 자랑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긴 통영 지역 특산품인 나전칠기와 누비제품은 소중한 이들을 위한 선물로 안성맞춤이다.

통영중앙시장은 통영종합버스터미널에서 5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약 6000원의 택시비가 소요된다.

통영여행, 알맹이만 빼먹지

통영중앙시장은 지역 내 수많은 관광 명소와의 인접성이 뛰어난 관광객들의 방문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영중앙시장 바로 뒤편 언덕으로는 '동양의 몽마르트'라 불리는 동피랑마을이 펼쳐져 있고, 시장 정문 입구 앞의 강구안에는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거북선이 자리 잡고 있다. 거북선의 내부 관람도 가능한데, 어른 2000원, 어린이 700원의 요금이 책정돼 있다.

남해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인 한려해상의 수려한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통영케이블카)' 역시 통영중앙시장과 불과 4.5km, 택시비는 약 5500원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뭔가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면 통영이 자랑하는 신비의 섬 비진도, 매물도, 소매물도 등으로의 '섬여행'을 추천한다. 통영중앙시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통영여객터미널에서는 평일 3항, 주말 3~6항에 걸쳐 각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다.

tip



먹거리·특산물 충무김밥, 통영꿀빵 | 나전칠기, 전통수공예품
즐길거리 동피랑 벽화축제, 한산대첩축제
주변 관광지 동피랑벽화마을, 통영케이블카
찾아가는 길 통영버스터미널에서 5km, 택시비 약 6000원

● 명블허진! 제주 대표 전통시장

제주동문시장

청정 수산물 풍성... 향토음식은 천국의 맛

국내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제주도는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다. 지난 2009년 사망한 고(故) 마이클 잭슨이 '살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제주도를 사고 싶다'고 말했을 만큼 특별한 매력을 가진 제주도는 매년 1200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다.

밭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것마다 수려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제주도에서도 매우 특별한 공간이 있다. 대한민국 최대 섬 제주 속 최대 전통시장, 제주동문시장이 바로 그곳이다.

제주도 최고(最古)·최대(最大)의 전통시장인 동문수산물시장은 지난 2006년 '전국 전통시장 박람회'에서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될 만큼 훌륭한 시설과 콘텐츠를 자랑한다. 특히 청정 제주 수산물 판매라는 특화상권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월등하다. 동문수산물시장의 장점은 역시 신선한 제주산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시중가의 절반 이하로 판매되는 각종 해산물은 택배로도 배송이 가능해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 형태로 이뤄진 동문공설시장은 제주 향토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갈치조림 및 구이, 보말(고등)국, 성게미역국 등 다양한 제주 향토음식이 준비돼 있다. 특히 어획량이 줄어들어 '금치'라고 불리는 갈치요리는 반드시 맛봐야 할 '필수 메뉴'임을 기억하자.

최근 청년상인 육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동문재래시장 역시 그냥 지나치기 힘들다. 고소한 땅콩아이스크림을 비롯해 큼직한 문어가 들어간 문어빵, 상큼한 굴하르방주스, 두툼하게 썬 돼지고기를 숯불에 구워낸 흑돼지꼬치 등 특색 있는 먹거리를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하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과일시장'이라고 불리는 (주)동문시장에서는 제주 특산품인 한라봉과 천혜향 등 신선한 과일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역시 택배 발송이 가능하다.

동문시장은 제주국제공항에서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약 6000원의 택시비가 소요된다.

제주 필수 관광코스! 세계문화유산 '성산일출봉'

거리는 제법 멀지만 동문시장과 약 40km 떨어진 곳에 우뚝 솟은 성산일출봉은 지난 2011년 11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7대 경관'에 이름을 올린 제주 대표 관광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성산일출봉은 '우뚝 솟은 봉우리의 모습이 마치 성(城)과 같다'고 해서 성산(城山)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특히 정상에서 맞이하는 일출은 '영주10경(제주도의 10대 절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산일출봉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다. 입장료는 2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성산일출봉의 바다 쪽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각종 야생화가 서식하고 있어 바다에서 바라보면 야생화 군락의 장관을 볼 수 있다. 성산일출봉을 오르는 길이 다소 가파르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오르기가 수월하지는 않으나 잘 조성된 계단을 따라 40여 분 정도 올라가다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tip



먹거리·특산품 고기국수, 오메기떡 | 옥돔, 감굴, 고사리
즐길거리 제주들불축제, 제주해녀축제
주변 관광지 성산일출봉, 용두암, 탐동해변
찾아가는 길 제주국제공항에서 4km, 택시비 약 6000원

● 제주 명물 먹거리 다 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대한민국 NO.1 트레킹 코스 '제주올레길'

제주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트레킹 코스인 '제주올레길'은 총 길이 198km, 21개 코스로 이뤄져 있다. 제주도 전체를 빙 두른 형태로 조성된 제주올레길은 수려한 제주 풍광을 관통하고 있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지역 명소로 유명하다. 특히 각 코스별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재미가 특별한 까닭에 매년 올레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올레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용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로는 쇠소깍에서 외돌개로 이어지는 제6코스, '쇠소깍외돌개 올레'를 꼽을 수 있다. 약 14km의 길이로 조성된 이 코스는 서귀포 시내를 지나는 비교적 평탄한 코스로 초보자에게 적합하며 쇠소깍, 제지기오름, 외돌개 등 제주의 숨겨진 관광 명소를 두루 품고 있어 인기가 높다.

쇠소깍은 효돈천의 마지막 자락에 있는 연못인 제주의 숨겨진 비경으로 소수의 관광객들이 알음알음 찾아왔다. 수려한 계곡을 끼고 잘 정돈된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이곳을 찾으면 반드시 제주 전통 목선인 '테우'를 타볼 것을 권한다. 고고한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테우 위에서 바라보는 질푸른 쇠소깍의 풍광은 마치 현실 속 장면이 아닌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선사할 것이다.

오직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제주 명물 먹거리 '한가득'

20여 개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 중 6코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서귀포시 최대 전통시장인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하 올레시장)'과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약 500개의 점포로 이뤄진 대형전통시장인 올레시장은 6코스의 종착지인 외돌개에서 약 3.5km, 도보로 2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올레시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품목을 판매하는 종합시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올레길과의 연계 후 '먹거리 특

화시장'으로의 변화를 꾸준히 시도해왔다.

그 결과 제주에서도 오직 올레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명물 음식들이 탄생해 시장 자체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가장 '핫'한 점포는 제주 특산품 중 하나인 흑돼지로 만든 꼬치 전문점 '남국의 참맛'이다. 시장 중앙통로에 위치한 이곳은 문을 열기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곤 한다. 주문과 동시에 눈앞에서 숯불로 구워주기 때문에 흑돼지의 참맛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남국의 참맛만의 특화 메뉴인 '말고기꼬치' 역시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청정 제주 목초를 먹여 키운 말고기를 한라봉과 감귤로 만든 양념을 발라 구워내는 말고기꼬치는 다소 낯선 말고기를 좀 더 쉽게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밖에도 30년 전통의 '할머니떡집'에서는 달콤한 팔을 듬뿍 묻힌 오메기떡을 맛볼 수 있고, 풍치를 통째로 말아낸 '우정회센터'의 풍치김밥, 알싸한 마늘향이 일품인 '마농치킨' 등 시장 곳곳에 숨겨진 맛집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tip



먹거리·특산품 흑돼지꼬치구이, 풍치김밥 | 갈치, 한라봉, 천혜향
즐길거리 이랑조을거리, 제주올레6코스
주변 관광지 쇠소깍, 정방폭포, 외돌개
찾아가는 길 제주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1시간 20분

제주도의 맛·멋·향이 한자리에 제주민속5일장

가장 제주도다운 시장

제주도 최대 5일장으로 유명한 '제주시민속5일장(이하 민속장)'은 지난 1990년 후반에야 현재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2·7일장(매월 2·7·12·17·22·27일 개장)으로 운영되는 민속장은 장날이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2만5000명 이상이 몰려들 정도로 북새통을 이룬다. 사방으로 뚫린 시장 입구로 쉼새 없이 사람들이 드나들며, 시장 안으로 걸음을 옮기면 사방에서 날아드는 제주도 사투리에 혼이 쏙 빠질 지경이다.

민속장은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자칫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속장 정문 앞에 있는 고객지원실에서는 간단한 시장 정보와 지도가 포함된 리플릿을 무료로 배포해주고 있으니 방문에 앞서 이를 챙기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주로 제주 특산품을 취급하는 민속장은 가장 좋은 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는 최고의 쇼핑 메카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특히 각종 수산물부터 상큼한 맛의 한라봉, 천혜향, 감귤 등의 과일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들이 한곳에 모여 있어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이 높다는 것도 강점으로 손꼽힌다. 시장 곳곳에서 맛보는 제주 향토음식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민속장은 제주국제공항과 불과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관광객들이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은 물론 도보로도 30분이면 충분하다.

도심 속 녹지 '한라수목원'·아름다운 제주 야경 '용두암'

공항과 가까운 민속장은 지역 내 다수의 관광지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즉, 다른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는 민속장을 지나쳐야 한다는 의미다. 수많은 제주 관광 코스에 민속장이 다수 포함되는 이유다.

민속장에서 약 3.5km 떨어져 있는 '한라수목원'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녹지공간으로 가벼운 산책에 안성맞춤이다. 지난 1993년 12월 개원한 한라수목원은 14만9782㎡ 규

모에 872종 5만여 본에 달하는 식물들이 심어져 있다. 특히 환경부가 멸종 위기 식물로 지정한 나도풍란, 한란과 파초, 일엽, 갯대추 등 보호 대상 식물 2722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희귀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제주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 제주박물관은 민속장에서 약 7.5km 거리에 있다. 제주의 토착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전시하는 고고·역사박물관인 제주박물관은 지난 2001년 6월 15일 개관했다. 72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제주박물관은 제주문화의 형성 과정을 문화사 발전 단계별로 볼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입장료는 무료다.

제주 야경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용두암' 역시 인기 관광 명소 중 한 곳이다. 물론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용틀임하고 있는 바위의 형상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낮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린다. 다만 용두암은 제주공항에서 민속장으로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민속장을 방문하기 전 혹은 모든 관광이 끝나고 어둠이 내려앉은 후 들르는 것이 좋다.

tip



먹거리·특산물 각종 회, 국수 | 천혜향, 감귤
즐길거리 민속장만의 향토음식, 한라수목원
주변 관광지 용두암, 국립제주박물관
찾아가는 길 제주국제공항에서 3.5km, 승용차로 10분

85년 역사 이어 새롭게 도약하는 세종전통시장

알싸한 파채 듬뿍 얹어진 파닭의 원조

지난 2012년 7월 출범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행정중심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세종전통시장은 무려 85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상설시장을 기본으로 4·9장(매월 4·9·14·19·24·29일 개장)이 병행되고 있는 세종전통시장은 약 6600㎡(2000여 평) 규모로 320여 개 점포에서 700여 명의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최대 전통시장이다.

지속적인 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깔끔한 모습으로 재탄생한 세종전통시장은 곡물, 수산물, 식품, 과일, 채소, 잡화류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을 주로 취급한다. 지리적으로도 지역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고객들의 시장 이용 편의성이 매우 높은 덕분에 장날이면 1500명 이상의 고객이 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세종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명물로는 단연코 '파닭골목'을 꼽을 수 있다. 과거 대한민국을 강타한 파닭 열풍의 시초인 세종전통시장은 여전히 파닭을 주력으로 하는 통닭집이 한 골목에 모여 있다. 특히 파닭 대중화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왕천파닭' 본점은 매일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룰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파닭은 고소한 닭고기와 알싸한 마늘, 파채의 맛이 어우러져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통닭의 신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분포돼있는 '시장표 분식 전문점'들의 존재도 반갑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매콤한 떡볶이는 물론 바삭한 튀김, 속이 꽉 찬 만두, 갓 튀겨낸 도넛과 크로켓 등 다양한 주전부리 메뉴가 준비돼 있어 고객들을 즐거운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

세종전통시장은 경부선이 연결된 조치원역과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중간에 위치해 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도보로 3분이면 충분하니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귀여운 반달곰들의 재롱에 빠져볼까

세종전통시장이 도심 속 숨겨진 명물 먹거리의 천국이라면

세종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명소들이 즐비한 고장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종호수공원을 꼽을 수 있다. 세종시 연기군에 위치한 세종호수공원은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축제섬', 색다른 공연이 펼쳐지는 수상무대를 품은 '무대섬', 너른 해변을 연상케 하는 '물놀이섬',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습지가 있는 '물꽃섬'과 '습지섬' 등 총 5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최고의 휴식을 제공해주는 세종호수공원은 특히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공원 인근에 국립세종도서관이 들어서 있다. 세종전통시장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시장 앞 정류소에서 601번 버스를 이용해 '제3주차장'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또한 '베어트리파크' 역시 지역 대표 관광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희귀종 식물 및 나무들 사이로 재롱을 부리는 반달곰들의 귀여운 모습은 관광객들의 사진 찍는 손놀림을 한층 바쁘게 만든다.

tip



먹거리·특산물 파닭골목, 떡볶이, 도넛
즐길거리 조치원연꽃축제, 복숭아축제
주변 관광지 베어트리파크, 세종호수공원
찾아가는 길 조치원역, 조치원터미널에서 도보 3분